

오직  
그분

# 추천사

선교 운동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종종 커티스 서전트를 우리 중 최고라고 언급하곤 한다. 그는 천재적인 지성과 겸손함, 열렬한 열정을 지닌 외골수이다. 그의 이러한 기질들이 전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가져왔다. 이 책은 간단한 기본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작은 책에 담은 것은 제자 삼기 운동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정신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닐 콜

글로벌 오가닉 처치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 *프라이멀 파이어(Primal Fire)*,  
*라이징 타이드(Rising Tides)* 등 수많은 책의 저자

커티스 서전트는 오늘날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구보다 세계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그분은 모든 열정과 몸을 바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난 깊은 영감을 받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큰 도전을 받았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격하기 원한다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책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란다.

펠리시티 데일

*보통 사람들의 군대(An Army of Ordinary People)*의  
저자이자 *스몰 이즈 빅!(Small Is Big!)*의 공동 저자

커티스 서전트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하는 실제적인 개념과 도구를 잘 결합했다.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 시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폴 에셀만

피니싱 더 태스크(Finishing the Task)의 회장이자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  
(Jesus Film Project)의 전 회장

나는 개인적으로 커티스 서전트와 몇 년간 알고 지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의 바람이 이 중요한 책의 원동력이 된다. 커티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앞으로 이끈다. 또한 마치 우리의 삶과 영원에 대한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설계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긴급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책의 내용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존 히레마

빅라이프(Biglife)의 창립자이자 회장

이 책에는 성경적 진실이 충실하게 담겨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발하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다.

덴 히츠후젠  
잇사갈 이니셔티브(Issachar Initiative)의 총장이자  
e3 파트너즈(e3 Partners)의 전 국제 부의장

오직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완벽한 연결고리를 찾아 나간다. 이는 작가가 그 교차 지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그분은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제자 삼기 운동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운동의 영향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초점이 공식과 빠른 해결책이 아닌 제자가 되는 방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성경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작가보다 겸손하고, 지지치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행하면 된다.

더그 루카스  
팀 익스팬션(Team Expansion)의 창립자이자 회장

오직 그분을 읽고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퍼뜨리는 삶의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 커티스와 내가 흘린 눈물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쁨이 넘치는 제자 양육 사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의 각 장을 읽고, 듣고, 적용하고, 나누고, 일기를 쓰고, 날짜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20절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냥 해 보라!

콜린 밀러  
충만한 교회 설립 국제연대(Global Alliance for Saturation Church Planting) 및  
가스펠 미디어 아웃리치(Gospel Media Outreach)의 기도 사역자

커티스 서전트가 또 한번 해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를 격려한다. 커티스는 실제 경험과 성경에 깊게 뿌리를 둔 공부에서 우리나라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 책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커티스는 나를 포함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데 커다란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며, 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제러드 벨스  
디모데 이니셔티브(Timothy Initiative) 부의장

오직 그분은 사는 지역과 자라온 환경, 교육, 문화에 관계 없이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온 맘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 사역을 위해 커티스 서전트와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책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의 결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열정적인 형제로부터 배울 것이 정말 많다. 영원히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각 페이지에 적힌 가르침, 기도와 현실적인 도구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감사하게도 커티스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새롭고 탁월한 도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믿음과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커트 벨슨  
이스트 웨스트 미니스트리(East West Ministries) 회장

주 예수와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해온 커티스의 겸손함과 깊은 통찰력이 오직 그분에 담겨 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천천히 읽어봐야 할 것이다.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에 대한 가이드가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다.

스티브 팔라토  
동남아시아 지역 운동가

커티스는 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목사의 마음을, 세상 속에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형성과 전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략가의 마음을,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신학자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최근의 이러한 노력은 예수님의 열성적인 제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타인과의 유대에서 찾는 보다 깊은 관계는 이웃과 도시, 나라, 지역을 변화시킬 진정한 힘을 갖는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경험하고, 실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지 않는지 보라.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알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신다.

데이비드 포프  
잇사갈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교회 설립 네트워크  
(Global Church Planting Network)의 전 총장

제자도는 성경 공부, 깊이 기도하는 삶, 신실한 예배와 간증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자도를 기르는 과정의 도구이며, 제자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러한 진실을 발견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개인의 순례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서로

신뢰하면서 성장해 온 여러 사람을 묶어 그룹 제자 훈련을 진행하기에 용이한 도구이며 다른 이들을 멘토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제리 랭킨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전 회장

우리는 변화무쌍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커티스의 책은 이러한 시대를 사는 교회를 위한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회의 닳이 되어 준다. 이 책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적이면서도 글로벌한 관점과 국제적인 경험을 지닌 실천가에 의해 쓰여져 매우 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꼭 읽어야 하는 책이며 분명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

프랭크 샤프너  
요나단 프로젝트 인터내셔널(Jonathan Project International)의 코디네이터이자  
*바퀴 모델(The Wheel Model)*의 저자

커티스 서전트는 몇십 년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실한 제자로서 살아왔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자 교육가 중 한 명으로서 전 세계에 퍼져 수백만 명의 신실한 제자들을 양성한 여러 제자 삼기 운동을 개인적으로 촉발시켰거나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책인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적 결실의 핵심 비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의 모든 원칙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주의 깊게 책을 읽고,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바란다.

데이비드 서번트  
헤븐스 패밀리(Heaven's Family) 창립자

커티스는 이 책에 담긴 메시지를 직접 살아낸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의 열정이 넘쳐흘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훈련과 멘토링은 제자들이 보다 신실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자 삼기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그가 만들어 낸 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선교 도구를 축복하신다. 이 책은 테오프락시(Theopraxy)의 개인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을 모두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입증된 도구를 담아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 책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기쁘게 귀담아 듣기 원한다.

앤디 스미스  
OMF 인터내셔널(OMF International)의 국제 선교 코디네이터  
(International Coordinator for Evangelization)

경험 있는 리더들은 아무것도 없이 리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대사가 된다는 것은 매일 같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커티스 서전트의 *오직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에 메트로놈을 설정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책은 한 번 읽은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 인생 여정에 새로운 인도자가 되어주었다.

네이트 방데르 스텔트

교회 전파 국제연대(Global Alliance for Church Multiplication)

총괄 부사장

커티스 서전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진실로 *오직 그분은*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방향은 그의 이론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해 급격히 변화했다. 이 책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란다.

톰 빅토르

그레이트 커미션 미니스트리(The Great Commission Coalition) 회장

오늘날의 자기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문화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절실하다. 내 친한 친구인 커티스 서전트가 쓴 *오직 그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목적과 능력은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길을 쉽게 알려준다. 이 책을 천천히 기도하며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책을 한 권 더 구한 후 다시 읽고 같이 토론해 보기 바란다. 이 책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Driven Life)*의

저자이자 새들백 교회의 창립 목사

이 책은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책이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얻기 위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말씀을 그저 듣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이 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영향력의 패턴과 원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도구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증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커티스는 이론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적은 내용을 실천하는 실천가에 가깝다. 이 책을 읽고 그가 전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리 우드

원 바디 글로벌(One Body Global)의 창립자이자 회장

# 오직 그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커티스 서전트



WILLIAM  
CAREY  
PUBLISHING

*오직 그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 2019, 커티스 서전트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출판사의 서면으로 된 사전 허가 없이 이 책의 어떤 부분이라도 재생산 및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 또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하여 전송하거나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잡지 또는 신문에 후기를 게재할 목적으로 책의 일부를 짧게 발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용 허가에 관한 문의는 [permissions@wclbooks.com](mailto:permissions@wclbooks.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문구는 개역개정판(NKRV) 구약 및 신약

© 대한성서공회 1998, 2000, 2003, 2005로부터 인용됩니다. 허가에 따라 사용됨.

영문 원본 출판사: William Carey Publishing | [missionbooks.org](http://missionbooks.org)

퍼낸곳: MetaCamp

주소: Highway 49 South

Dadeville, Alabama | [metacamp.org](http://metacamp.org)

번역: Christian Lingua

ISBNs:

979-8-9889932-7-8 (epub)

전 세계적으로 배포됨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2019945985 (영어).



# 목차

체크 박스 1 한 장(章)을 읽고 완료했을 때						
2 내용을 삶에 적용했을 때						
3 다른 사람에게 책의 내용을 가르쳤을 때						
4 내가 가르친 사람이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5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르친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을 때						
이 책을 쓰게된 이유						x
감사의 말						xiv
이 책을 읽는 방법						xvi
테오프락시에 대한 소개						xviii
<b>1부: 테오프락시의 개인적인 측면</b>						
	1	2	3	4	5	
1.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2. 삶은 한 번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3. 가장 먼저 하나님을 추구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4.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나침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5. 우리의 적은 두려움과 교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6. 고난은 지나가야 하는 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b>2부: 테오프락시의 통합적인 측면</b>						
	1	2	3	4	5	
7. 새 언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8. 새 계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1
9. 함께 하나님께 경칭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9
10.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모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7
11. 하나님은 소통의 모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1
<b>3부: 테오프락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념과 도구</b>						
	1	2	3	4	5	
12.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1
13. 온맘으로 충성해야 할 하나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1
14. 3/3: 신실한 삶의 패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1
15. 책임지는 삶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3
16. 기도 속에서 성장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9
17.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7
보충 자료						154
저자 소개						156
부록 1: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157

# 이 책을 쓰게된 이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몇십 년간 개척 사역을 진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지역은 다를지라도 원리는 동일하다. 이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내 인생의 첫 28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다. 나는 우등생이었으며 운동선수였다. 결과적으로 내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크리스천”으로 보았다.

나는 고립되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미전도 종족(UUPG)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떤 거대한 섬에는 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 믿는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되었다. 이러한 문맥에서 나는 내 재능과 열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장 5절)”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다.

나는 내 관점이 완전히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스스로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산을 오르지도 않았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내 모든 노력과 성취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경청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 했다. 즉, 내 안에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의 성경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다음 5년 동안 나는 이 책에 담은 도구와 원리들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집했다.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내 아내와 나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동안 새로운 의미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 5년이 끝나갈 때쯤에는 평생 꿈꾸고 열망해 온 목표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곧이어 그 많은 인구가 모인 각 모든 마을에 교회가 생긴 것이다. 이 수천 개의 교회는 많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선교 기지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길러냈고 이는 여러 성령 충만한 세대들을 거쳐 지속되었다. 나는 내 소망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열망 또한 너무 작았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웠던 것이다.

나는 내가 느끼기 시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내가 교육한 훈련생들은 나처럼 지구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소망을 둔 장기 선교사들이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한 달짜리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7년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습한 끝에 나는 주님이 다시 미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선교사이셨고 나는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르심이었다. 나는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 즉, 내가 고등학생일 때 부름을 받은 장소에서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어두운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내 신경을 집중했다.

이후 11년간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과 장소에 집중한 끝에 하나님은 내가 노력의 절반을 미국인들에게 쏟기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최전방 선교에서 나누었던 것을 미국 내 믿는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미국인 크리스천들의 눈이 멀어 있으며 보다 풍성한 삶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배운 것과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실천한다. 이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물론 설교단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법을 배우려 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

내가 내 믿음을 살아내는 더 깊은 방법을 깨닫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아내 데비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는 지원과 즐거움을 끊으셨다. 그제서야 나는 내 부족함과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믿음을 살아내는 다른 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북미에 사는 많은 신도들에겐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 그들에게엔 풍부한 지원 시스템이 있었으며 언제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에 반하는 사람들에겐 장애물이 있다. 익숙하지 않은 영적 표현을 시작하는 자에게 위협을 느낀 자들이 익숙한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잠깐 쉬어가는 이 7년간 미국에 집중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최전방 선교지에서와 같이 일하시고 계신다.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모든 장소에는 복음에 대한 장벽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 널리 알려진 패러다임이 미국에서 진정한 제자도를 선포하는 데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개념을 바꾸는 데 이 책을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혁신적인 삶을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믿는다. 혁신적인 기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 혁신적이셨으며, 우리는 그분이 가는 곳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요한1서 2장 6절).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이 쓴 책에 추천사를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내 원칙은 고상한 상아탑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닌 성공적인 실천가들이 쓴 책에만 추천사를 써주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쓴 육아에 관한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처음으로 내 책을 썼다. 책을 쓰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큼 나에게도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세운 추천사에 대한 원칙에 대해 조금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 자신을 이 책에서 논의한 모든 것을 일관적으로 실천한 성공적인 실천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이 책에서 권장하는 많은 생활 양식을 삶에 적용했지만 아직 몇몇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미진하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을 때 그 또한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원칙들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고 믿고 있다.

몇 년간 나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다음 어록을 내 책상에 두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지적하거나 무언가 이뤄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람은 얼굴에 먼지와 땀, 피를 뒤집어쓴 채 실제로 경기장에 있는 사람, 용감하게 노력하는 사람, 계속해서 실수해도 목표를 이뤄내려 실제로 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실수와 흠 없는 노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헌신하는 사람, 옳은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가장 최고의 때에 결국엔 승리를 쟁취할 것을 아는 사람, 가장 나쁠 때에 실패하더라도, 즉, 최소한 과감한 노력 끝에 실패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는 절대 승리나 패배를 알지 못하는 냉소적인 겁쟁이들 옆에 앉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실천가이다. 노력하기 때문이다. 몇 년간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진전을 보았다.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희망과 소망을 준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내가 제시한 도전과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 사이에 있는 격차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매일 더욱 열정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좇는 것이다.

이 책은 이상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만 단순히 설명만 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실천하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추구하고 실천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 감사의 말

물론 내가 여기에 언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자 피조물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의 원동력이다.

내 아내인 데비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며 내 가장 친한 친구다. 그녀는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여러 방향으로 채워 주고, 지지해 주며,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

내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 의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시며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 주셨다. 이것은 내 인생에 단단한 초석을 놓았다.

내 자녀들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손주들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내가 배운 것 중 많은 부분은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면서 경험한 것들이다.

편집장인 브루스 배런과 마크 에스핀월은 매우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 내가 이 책의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일은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브루스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그의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가이드라인은 큰 도움이 되었다. 마크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부분을 더 유용하게 만드는 데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그가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실천가라는 점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 책을 보다 읽기 쉽게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마음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 데니스 윈, 멜리사 히스, 앤드루 슬로안, 케이티 맥게피, 마이크 리에스터 등 윌리엄 캐리 퍼블리싱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나와 같이 일했던 수백 명의 파트너들에게 감사한다.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삶을 바친 이 사람들은 내 친구이자,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며, 내가 내가 더 큰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다. 지난 30년간 이들은 모두 합쳐 약 천 개 정도의 운동을 일으켰으며, 5백만 개가 넘는 가정 교회를 세우고,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을 알게 되고 같이 일했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자 특권이었다.

특히 한 사람을 언급하고 싶다.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간 스티브 스미스는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거의 동갑이었다. 나는 1990년대 아시아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된 전략 코디네이터 (Strategy Coordinator) 트레이닝 행사에서 그를 교육하게 되면서

스티브를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잠깐 동안 그의 멘토가 되었고, 그는 곧 동료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실천가, 교육자, 리더이자 작가가 되었다. (그의 마지막 책인 *스피릿 워크*[*Spirit Walk*]는 2018년에 쓰여졌으며 이 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 서로 휴가를 보내곤 했다. 또한 몇 년간 같은 나라에서 일했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서로를 격려했다.

보다 최근에 그는 1990년대 초 같은 뿌리에서 나온 여러 운동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24:14 연합을 창설했다. 그는 나에게 동역자로 섬겨달라고 요청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연합을 창설하자마자 암이 발견되었고 18개월이 채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그의 인생에 깊은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이 그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페이지를 빌려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영광이다. 여러분이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커티스 서전트  
2019년 3월 13일

#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은 크리스천의 삶을 일상에 적용하는 책이다. 이 책은 여러분 삶의 일상적인 패턴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생각은 하지만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각 장을 읽은 후 잠시 시간을 들여 되돌아보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이 되돌아보는 시간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장 뒤에 나오는 질문을 읽고 자신의 반응을 (펜으로 적거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2.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내가 읽은 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하고, 나누기 원하시는지 여쭙는다.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본다.
  - a.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실천하기 원하시는가? 이는 관련 성경 구절 암송과 같은 간단한 일부부터 아프가니스탄 선교와 같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화를 피하기 바란다.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언제 그 단계를 실행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라고 기도한다. 목표는 단순히 바라는 데에서(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계획(예: “오늘 알람을 30분 일찍 설정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 b. 해당 장에서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지 최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리고 나눌 내용과 나눌 시기에 대해서도 기도한다.
  - c. 이 활동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 d. 하나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배운 내용을 나눌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라고 기도한다.
  - e. (선택사항) 다른 사람과 같이 책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 잠시 같이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 동료와 언제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지 정한다(보통 다음 장에 대해 나누기 위해 만날 때 점검한다).



3.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일기를 열고 지난 장에서 한 결심한 것을 살펴본다. 기존에 정한 날짜를 하나라도 놓친 경우 새로운 날짜를 정한다.

각 장의 시작과 끝에 이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다.

목차 페이지에 있는 내용 및 실행 차트는 각 장의 진도, 적용, 교훈, 전파 정도를 추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책이 어렵지 않기 바란다.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다. 하지만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때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테오프락시의 도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매일 쏟아붓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

# 테오프락시에 대한 소개

---

테오프락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다.*

---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6절

삶의 모든 책무와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든가? 삶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고 여러 일을 동시에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잘해야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면 어떻겠는가? 이 단순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에 집중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즉,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테오프락시* (문자 그대로 “하나님-실천”이라는 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활 양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 방법, 목적, 인격, 본질, 소망, 생각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테오프락시의 삶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단순하다. 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삶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바쁘고 피곤하다.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기껏해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아니다.

*테오프락시*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울소프락시* 또는 바른 실천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 *울소프락시*는 종종 *울소독시* 또는 바른 믿음과 대비된다. 요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올소독시)은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올소프락시).

테오프락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개념은 실천 뒤에 있는 동기와 그 실천을 살아내는 능력의 원천을 다룬다. 그 동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23절

이 구절에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실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동기나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행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올소프락시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오프락시는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적인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내기 위해 행하는 것을 촉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념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의지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사랑, 감사, 헌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나오게 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이 여정이 테오프락시다.

내 친구 게리 리데르바흐는 이를 다음 기도에서 잘 묘사했다 (모든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판에서 발췌함).

주님은 제 영혼의 중심과 의지, 감정을 통해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사 “그리스도의 마음”(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마가복음 9장 41절)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로마서 8장 9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고린도전서 10장 16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고린도전서 10장 16절)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고린도후서 2장 15절)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감명받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진리”(고린도후서 11장 10절)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갈라디아서 1장 6절) 속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빌립보서 1장 27절)을 나누게 하시고, 내 동료와 종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히브리서 3장 14절)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골로새서 1장 7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골로새서 3장 15절)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골로새서 3장 16절)이 내 영혼에 거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갈라디아서 2장 20절)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제 삶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십니다. 주님이 그리하심과 같이 저도 이 세상에서 그리합니다(요한1서 4장 17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로마서 8장 29절). 제가 하는 모든 것, 제가 마주하는 모든 것, 제가 이겨내는 모든 것, 제가 되는 모든 것이 이러한 목적, 즉, 주님이 날마다 저를 주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 하루의 모든 순간에 마주하는 모든 선택 또는 도전은 제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대로 주님에게까지 자라 가기 때문입니다(에베소서 4장 11~16절). 저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부

## 테오프락시의 개인적인 측면



# 1 삶 전체를 아우르는 길

---

테오프락시는 삶의 모든 부분,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를 모두 정의하는 준거 틀이다.

---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5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14절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변화시키려고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디도서 2장 11~14절).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테오프락시의 삶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및 31절, 9장 17절, 13장 9절 및 52절)

- 빛 가운데 걷는 것(요한복음 8장 12절, 11장 9절, 12장 35절, 에베소서 5장 8절, 요한 1서 1장 5~7절)
-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로마서 6장 4절)
-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및 25절)
- 사랑으로 행하는 것(로마서 14장 15절, 에베소서 5장 2절)
- 믿음으로 행하는 것(고린도후서 5장 7절)
-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요한3서 1장 1절, 3~4절)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요한복음 15장 4~7절, 9~10절, 요한 1서 2장 27~28절, 3장 6절 및 24절, 4장 13절)
- 성령 안에 거하는 것(요한복음 14장 17절)
- 빛 가운데 거하는 것(요한 1서 2장 10절)
-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요한 1서 2장 24절)
-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요한 1서 2장 6절)
-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골로새서 1장 10절)
-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베소서 4장 1절).

이 구절들을 보면 믿는 자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조정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다.

테오프락시의 삶은 구원을 얻어 내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대해 사랑이 많으시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이다. 우리의 원래 운명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반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걸보기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지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진실성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한다.

델러스 윌러드가 말한 것처럼(<http://www.dwillard.org/articles/individual/live-life-to-the-full>) 은혜와 노력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은혜는 ‘얻어 내는 것’에 반대된다. 노력은 행위이다. ‘얻어 내는 것’은 태도다.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러한 점을 말한다. 저자는 회개와 영생(6장 1~3절)과 같은 믿음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성경의 독자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숙함을 길러내도록 촉구한다(4~9절). 그리고 10~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주의하신다. 실제로 우리는 노력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게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로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 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난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에베소서 2장 8~9절).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즉,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오류가 가장 널리 퍼져 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행동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는 데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골로새서 1장 24절).

야고보서 2장 14~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선한 일을 통해 구원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행함이 구원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을 얻은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의 원천이 아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자기모순이다. 우리가 믿고, 귀중히 여기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말, 우리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가 시간,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충성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15장 1~17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행함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거하는 것만큼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것은 즉,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열매 맺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행함으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왕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일에 대해 사랑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에 대해 누가복음 17장 7~10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셨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받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에베소서 2장 8~10절은 은혜로 구원 받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구원받는 것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한다. 우리는 앉아 있으라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곤 한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현재의 사랑에서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고 줄곧 말하곤 한다. 설령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묘사하는 주요한 성경적 용어) 사랑에 대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필로스*(형제 사랑, 또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사랑)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별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신다. 이는 마태복음 5장 44~45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과 같은 구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로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른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필로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언급된다. 이 구별되는 특성이 요한을 눈에 띄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과 그러한 종류의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따라서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나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12절에서 골로새인을 위해 기도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기도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하나님과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게을리 행하고, 잊어버리거나,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제가 이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다음 단계들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아래 질문에 있는 결심을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결심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날짜를 기록해 보세요.

1.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
2. 나는 수동적으로 영원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
3. 내가 행하는 일과 시간을 쓰는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는가? 어떻게 그런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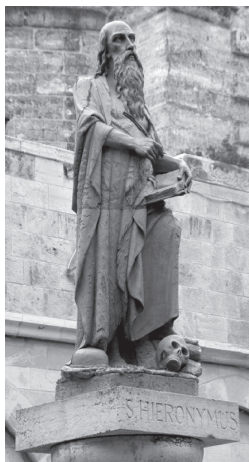
## 2 삶은 한 번뿐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지만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장

이번 삶에서 시간을 매우 잘 사용해야 한다. 테오프락시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오직 한 번뿐인 삶, 찰나같이 지나가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함만이 영원하리*  
—C. T. 스티드의 시 “한 번뿐인 삶”의 후렴구



이 사진은 베들레헴에 위치한 예수 탄생 기념 성당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 동상을 찍은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라틴 불가타를 번역했다. 불가타 성경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식 가톨릭 성경으로 사용되었고 전체 성경에 대한 번역본 중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번역본으로 여겨진다.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은 히에로니무스가 30년 넘게 머물며 번역을 진행한 여러 겹의 터널과 동굴 위에 세워졌다. 히에로니무스 동상을 보면 그의 왼쪽 발목에 해골이 사슬로 묶여 있다. 전승에 따르면 히에로니무스는 인생의 덧없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하기 위해 해골을 왼 다리에 묶었다고 한다. 그의 인생 구절은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이었다. 그의 초점을 통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뉴델리에서 베이징까지, 라고스에서 상파울로까지, 런던에서 뉴욕까지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기술이 스며들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바쁨과 빈곤이 생겼다. 바로 시간의 빈곤이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할 때 계속해서 시간 부족으로 거절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기보다 늘어나야 정상이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예수님은 주력하는 삶의 롤모델이 되셨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행하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8장 28절, 12장 49~50절, 14장 10절).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의 통치에 관한 예언을 이루셨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이사야 11장 3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기반을 둔 삶을 사셨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14절을 통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한복음 12장 49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것은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셨으며 다른 것은 행하지 않으셨다.

테오프락시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은 없다.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의 밖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하도록 예비해 두신 선한 일에 대해 말한다. 우리에게 시간,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일 이외의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한 것으로서 시간을 빼앗아 쓰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바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대신 주님의 인도를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 할 시간이 부족하다. 비슷하게 만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대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소음을 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은 나쁜 일, 죄짓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립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난 일일 수 있다. 일반적인 예는 텔레비전, 웹 서핑,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컴퓨터 게임 등의 스크린 타임이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은 선한 동기를 가진 봉사활동 같이 선하고 고귀한 일이나 운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조차 하나님이 요청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불필요한 일이 된다.

단순하게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시간은 부족하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분명 시간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이것은 청지기 정신의 문제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성령님과 더욱 더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활동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와 소망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15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일상적인 패턴이 행함의 본질을 구성하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 평가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과 발을 맞춰 가는 것이 이생의 삶과 영원한 삶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절대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번”일 수 없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러한 휴식 활동이나 활동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도록 만드셨다. 심지어 구약성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과 다양한 기념일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행사를 즐길 시간을 보장하셨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삶을 즐길 때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능력이 어떠한지 이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귀 기울이는 한, 그분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나무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는지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숙하게 자라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곤경의 늪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가르쳐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행함을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함에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술을 열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만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만 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 a. 내 시간은 죄로 가득 찬 활동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 b. 독립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 c.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시지 않은 선한 일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 d. 내가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가?
2. 여기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 이상의 말을 하거나 충분히 말하지 않는가?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하거나 충분히 행하지 않는가?
3.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4.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3 가장 먼저 하나님을 추구할 것

---

인생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분을 더 많이, 더 완전히 알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7~11절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희생했으며, 고통받았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완벽한  
혈통과 힘들게 얻어낸 종교적 업적에 대해 이야기한다(3장 4~6절).  
그다음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우리의 기쁨, 자랑, 충만함은  
우리의 재능, 성취 또는 유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3장 1~6절).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삶과 죽음의 유일한  
이유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영원한 삶의 근원이다. 바울에  
따르던 이러한 축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3장 7~11절). 바울은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이 그의 모든 생각과 숨 쉬는 순간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온전히 이론” 사람이거나 성숙한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한다(3장 15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3장 17절).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보다 깊은 관계를 추구할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은 앞서 쉬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힘쓰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적으로 불린다. 그들은 세상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결국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3장 18~21절).

바울은 중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중 하나만 선택해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 지점에서 살려고 한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교회처럼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요한계시록 3장 14~19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요한계시록 3장 20절).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며, 그분의 의지, 길, 목적, 인품, 본질, 소망, 생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우리의 의지, 길, 목적, 인품, 본질, 소망, 생각은 그분에 의해 다듬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창조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이 과정을 시작하며 부분적으로 이것의 목적은 영원한 교제와 경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더 닮은 모습으로 변모시키신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요한1서 3장 2~3절).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변모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한다(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 또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을 아는 것(빌립보서 3장 8절)과 주님을 알리는 것(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자의 삶이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주님을 더 잘 알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과 의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마태복음 11장 27절). 하지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정말로 알리기 원하신다. 주님은 끊임없이 소통하신다. 자연, 창조, 제국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규모가 크고 큰 소리가 나는 방법으로 소통하신다. 또한 잔잔한 인상, 생각, 꿈 또는 친구의 작은 몸짓과 표정 등 조용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도 하신다. 주님은 성경, 기도, 함께 믿는 자의 말, 고통 또는 슬픔으로 소통하신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골로새서 1장 15~20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으로 불리신다. 주님은 많은 방법으로 소통하시지만 그중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한다(히브리서 1장 1~4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 문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상자를 넓히는 것이다.

상자의 윗면은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이 윗면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로에게 일어났었다(마가복음 5장 22~24절, 35~43절, 누가복음 8장 41~42절, 49~56절).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 그의 딸에게 다가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그날 아이로의 상자가 높아졌다.

상자의 옆면은 하나님의 관심의 넓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이 옆면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와 만난 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에게 일어났었다.

상자의 밑면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다. 이 밑면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신다(마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의 피조물 중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통제밖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사탄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대해 더 잘 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감사에 따른 순종이

아닌 교만과 반항이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믿음도 충분하지 않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편다(야고보서 2장 19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린도전서 8장 1절).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실제로 그리스어에서 “순종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듣다”의 집약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0장 27절). 반대로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친구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5장 15절).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로마서 8장 14절). 베드로는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선택된다고 말한다(베드로전서 1장 1~2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그분께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요한1서 2장 3~6절).

하나님은 말씀(성경)을 통한 소통과 성령님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 모두 사용하신다.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씀과 성령은 여러 번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예: 에베소서 5장 18~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의 대구). 이 두 개념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되는 개념이다(요한복음 3장 34절, 에베소서 6장 17절).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즉, 성경)을 통한 방식 또는 성령님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없이는 주관성이라는 이름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면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받아야 한다. 성경에 나온 원리와 예시들은 이러한 인도하심을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첫 번째 관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끝에 가깝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23~27절에서 예수님은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와 수리아의 나아만에게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더 눈에 띄고 다가가기 쉬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 특정한 개인에게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를 치료할지 어떻게 아셨을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난다. 나는 내가 꾸는 꿈을 근거로 인생을 바꾼 중대한 결정들을 내린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나는 이것보다 자주 성경을 통해(종종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에 대한 내 생각을 통한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외치는 성경의 패턴을 관찰하곤 한다. 또는 찬양의 한 소절이나 성인들이 한 말에 감명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며 감명받기도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그분의 음성은 종종 단순히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생각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삶이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되기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다면(마태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2장 7절) 가장 사소한 나의 일상적인 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성경과의 일관성 이외에도 내 생각의 근원을 평가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괜찮은 검사법은 내 생각이 성령의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인지 구별하는 것이다(갈라디아서 5장 19~23절). 내 생각에 증오, 이기적인 야심, 성적인 불결 또는 다른 육신의 특성이 담겨 있다면,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내 생각의 어조 또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성령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지만 원수는 나를 책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능력은 정체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완수할 수 없는 여정과 같다. 그전까지 우리는 “여정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알리고 영광받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고 보다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 생각, 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자 그분을 따르는 자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도 없는 누군가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크기에서 아주 작은 원자 단위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들을 귀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인 것이다. 이 삶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것에 기반을 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현실에 기반한 삶인 것이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자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의 대부분을 쏟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이 저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제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뿌리 뽑아 주세요. 제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2.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분명히 듣고 인식하는가?
3.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신실하게 들을 수 있는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4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나침반

---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잠깐뿐인 이 세상 속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하나님 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반직관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 높아지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마태복음 20장 25~28절).
- 강해지는 방법은 약해지는 것이다(고린도후서 12장 9~10절).
- 부유해지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마가복음 10장 21절).
-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은 미련해지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장 18~25절).
- 기뻐하는 방법은 우는 것이다(누가복음 6장 20~26절).
- 첫째가 되는 방법은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마가복음 9장 35절).
- 이기는 방법은 지는 것이다(누가복음 9장 25절).
- 사는 방법은 죽은 것이다(마태복음 10장 38~39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직관적이다.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는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가난한 가정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그분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무명으로 성장하셨고, 3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끔찍한 고문을 받아 죽임당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통치를 견고히 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발판을 이루셨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 전개다.

테오프라시의 삶을 위해서는 반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집중하고 우리 삶의 기반을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 그 예다. 10명은 자신이 본 사실을 보고했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민수기 13장 31절). 하지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똑같은 사실을 목격했다. 똑같은 거인과 똑같이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 쌓인 도시를 봤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죽이려 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염려했다.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시라고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군대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해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엘리사는 담대하게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왕에게 돌려보내 주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적 군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평화 속에 되돌려 보내도록 왕에게 지시했다. 아람 군대와와의 이러한 만남은 곧 휴전 기간으로 이어졌다.

마태복음 14장 28~33절에 또 다른 예가 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다. 그는 예수님이 파도를 헤치며 걸어오시는 것을 본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오라고 권하시며 그는 그대로 한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여 예수님께 책망받는다. 예수님은 보이는 힘인 바람, 파도, 중력 보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담대히 행하기 원하셨다. 이것이 대체 현실에 기반한 행동인 것이다. 세상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기반을 둔 삶에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다.

테오프락시에 대한 도전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히브리서 12장 1~11절, 고린도후서 4장 7~18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다(히브리서 11장 1~3절).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브리서 11장 6절).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중간에 저자는 이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16절)

이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1절에 나온 대로 이러한 믿는 삶의 초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대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경주에서 달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 앞에 놓인 즐거움을 어떻게 기억하셨고, 견뎌야 했던 고통과 수치를 어떻게 경멸하셨는지 기억하며,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죄에 저항하고 아버지로부터 온 징계를 견뎌으로써 마주칠 시련에 대해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히브리서 12장 11절)를 맺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의 보상이 이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7~12절, 16~18절에 같은 주제에 대해 적혀 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응당 겪어야 할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믿음의 삶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한다. 그가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안전하며, 견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견뎌온 난파, 돌팔매, 구타, 투옥, 굶주림을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되는 “경한 것”과 “잠시 받는 환난”으로 여긴다.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이었으며 그는 그에 따른 삶을 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50~5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며 언젠가 죽어야 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지 설명한다. 그는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원한 약속의 삶을 위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

또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렇듯 엄중하게 중심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절에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린도전서 10장 1~12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쓰여 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기적을 통해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시며 생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모세의 기적에 참여한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케 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악한 일을 행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6, 7, 10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1~12절). 우리는 약속받은 땅을 놓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려놓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반복되는 주제는 분명하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기록한 이유이다(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속성이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수단이며 소망은 우리가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가 테오프라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2장 3~4절). 이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디모데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 초점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초점은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통해 묘사할 수 있다. 잠깐이지만 나는 베리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베리를 기르려 한다면 블랙베리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블랙베리를 기르는 일에는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 철사 두 줄로 된 격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대 옆에 약 1.8m 간격으로 베리를 심어야 한다. 매년 심은 베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난다. 두 개의 줄기를 제외하고 모든 줄기의 가지를 쳐야 하며 이 두 줄기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줄기가 성장하면 줄기를 기둥에 엮고 추가로 돌아난 순을 쳐낸다. 이후 한 줄기당 철사 한 개를 타고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다시 추가로 돌아난 순을 계속해서 쳐낸다. 한 철 동안 블랙베리 농부는 90%의 순을 쳐내게 된다. 그래야 하나의 순이 장대와 철사를 타고 자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의 끝에는 모든 장대와 철사에 풍성히 열린 열매가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지지대 없이는 심은 베리에서 그만한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수확한 베리는 크고 과즙이 많다. 모든 베리는 쉽게 접근해 빠르고 손쉽게 딸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야생 블랙베리도 있다. 야생 베리들은 크기가 더 작다. 또한 한 나무당 적은 양의 블랙베리만 열린다. 이 블랙베리를 따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을 헤쳐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따는 야생 블랙베리의 수는 5분 동안 딴 정성 들여 재배한 블랙베리의 수와 같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미 설명한 인정사정없는 가지치기뿐만이 아니다. 수확 후에는 지난 철에 자란 나무를 전부 잘라내고 모두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확량을 달성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편하고, 일상적이고, 게으른 방법으로, 즉, 야생 블랙베리를 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열매는 그분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온 인생을 바쳐 수확한 열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뭇가지 또는 줄기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부한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나뭇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열매라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징계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히브리서 12장 10절) 하시는 분이다. 이전 것을 “벗어” 버리고 새 삶을 “입을” 것을 촉구하는 구절(예: 에베소서 4장 20~32절, 골로새서 3장 8~17절)에서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일상 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것)에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종종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마태복음 7장 22~23절).

종교적인 행위나 영적인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기적의 축복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0~24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예수님은 이 기적들은 단지 심판의 날에 이들 도시에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이 실제로는 상이 되는 것 같이 회개와 결심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조차 별이 된다*(마태복음 5장 10~12절, 사도행전 5장 41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나는 왜 몇몇 사람들이 징표와 기적에 매혹되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길 바라지만 이유는 매우 다르다. 나는 완벽한 테오프락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목격해 보고 싶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순간,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며 아버지의 의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며, 목수의 삶을 살아 내시며, 어떤 농담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늘나라의 완벽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이 세상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와 비슷하게 사역 소식을 읽는 많은 사람은 사진을 사랑하고 텍스트는 어떻게든 견디지만 스프레드시트와 통계는 싫어한다. 나는 그 반대다. 난 사진을 거의 보지 않는다. 결국에는 교육에 참가한 수많은 교육생이 내가 본 수백 개의 비슷한 사진 속 인물들처럼 보이게 된다. 나는 텍스트를 찾고 스프레드시트나 통계를 보고 싶어한다. 나에게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사진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또한 선호하시는 것이 있다. 용모와 행동을 보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보신다(사무엘상 16장 7절).

테오프락시에서 우리의 관중은 한 명뿐이다.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때 우리의 삶이 경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을 비유로 들어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셨다(마태복음 13장 3~23절, 마가복음 4장 3~25절, 누가복음 8장 5~15절).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단한 마음을 나타낸다. 힘든 시기와 박탈은 얇은 마음을 나타낸다. 좋은 시기와 풍족은 산만해진 마음을 나타낸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분의 일을 나타내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하신다(25~26절). 또한 아들이 나타내기 전에는 아버지나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덧붙이신다(27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신다(28절).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짐을 주신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실 것이다. 또다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에 모순이 생긴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쉽고 가볍다(29~30절).

언제나 그래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으며(출애굽기 33장 11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민수기 12장 3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으며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다(민수기 11장 11~14절). 성경 전체에 걸쳐 동일한 패턴이 사실로서 여겨진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들은 종종 위대한 희생을 위해 부르심을 받지만 장대한 일을 위해 쓰임 받기도 한다.

단 한 명의 관중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격주의자의 삶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음의 태도다. 이 마음의 태도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 결심의 수준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는 이처럼 거슬리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표현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헌신하는 수준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수준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현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현세의 삶보다 더 위대하고 긴 삶입니다. 하지만 제 두려움과 편안함을 향한 갈망이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제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상을 받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찰나의 순간뿐인 이 세상 속에 뿌리 박힌 제 마음을 빼내어 영원한 세상에 옮겨 심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주로 내가 매일의 결정을 내리는 기반은 세상의 현실인가 아니면 영원한 현실인가? 일상에서 나의 활동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2. 만일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진행하는 일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인가?
3.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4.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5 우리의 적은 두려움과 교만

---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6~8절

두려움과 교만은 테오프락시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두려움보다 교만에 더 약하다.

두려움과 교만 모두 실제로 죄의 집합 또는 죄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선교 동아리에서 우리는 종종 죄에 기반한 문화 또는 수치심에  
기반한 문화를 언급하곤 한다. 죄책감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죄책감은  
정죄와 별을 두려워한다. 수치심은 교만의 표현이다. 수치심은 개인 및  
집단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선하심, 신실하심, 관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 따라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와 같은 사람, 돈 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한 예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두려움은 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 돈 또는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35~41절에는 두려움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는 동안 폭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배를 가라앉힐 기세로 때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 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했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으시자 잠잠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커다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작은 배에 탄 사람에게 두려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반응은 피할 수 없는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모두 숙련된 어부이며 이보다 더 큰 폭풍을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다. *어찌*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폭풍이 오자 겁을 먹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러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애굽기 3장 11절)라고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여호수아 1장 9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애굽과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감해질 수 있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분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교만해질 때 스스로를 신뢰와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는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C.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중요한 죄로 언급하며 사탄 자체의 특성이라고 말한다. 그는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인 겸손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여긴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테오프락시 삶을 살 수 없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대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상대적으로 사역 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역 중반기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라고 언급한다(에베소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생애 끝자락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한다(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은 진실일 수가 없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사역을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바울은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더 많이 비교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이전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줄어들었다.

교만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는 “높고 거룩한 곳”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두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한다면 반드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 구절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출 때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시편 34편 1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3~14절

자존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신다. 실제로 우리는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상대, 우리의 적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6~8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작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만 교제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겸손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써 구원하신 약하고 죄가 많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잘 꾸며진 연극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며 이러한 연극을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만은 우스운 것이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주님은 앗수르 왕의 교만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신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능력, 기술,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복음 15장 5절).

마침내 하나님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인간의 교만이 끼어들 틈은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 2장 11~12절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선하고 훌륭하다는 교만이라는 환상에 빠져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하심, 영광, 능력 안에서 그분 자신을 드러낼 때 이전에 교만했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며 자만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교만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지금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결국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하게 될 겸손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지녀야 한다. 테오프락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 교만과 싸워야 한다.

나는 “피로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고 종종 말하던 어떤 코치를 알고 있다. 그는 맞는 말을 했다. 깊은 피로보다 더 나의 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긴 시간에 걸친 극단적인 피로를 몇 차례나 경험하게 하셨다. 이 경험은 무력이라는 느낌을 만들어 낸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의 교만해지려는 성향을 다루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피로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하고 필사적인 갈망을 명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 그분은 나를 초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장 28~30절).

예수님이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명에,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라. 예수님은 그분을 떠난 우리의 욕심을 위한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의 약함과 피로 속에서도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양하고 교만함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 감사하는 것, 더 많이 듣는 것,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조연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대체로 영원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모든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주님과 그분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 테오프락시는 두려움과 교만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적이 침투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단호하고 가차 없이 이러한 적들을 무찔러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테오프락시와 관련된 수 천개의 성경 구절을 훑어보며 첫날을 보냈다. 그러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명확히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홀로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양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주제는 적어도 빈도의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경에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못된 구원의 원천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백 개의 예시가 들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필수적인 축복, 모든 필요를 해결할 유일한 원천으로서 그분을 찾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보호를 위해 그분을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

여기 시편의 두 가지 예시가 있다. 두 번째 예시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시편 46편 1~2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4~15절

이 두 개념은 명확히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창조의 원천이시자 창조를 지속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이 두 주제와 두려움 및 교만이라는 죄 사이의 흥미로운 연관성을 발견했다. 두려움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안정과 구원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만은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우주의 중심으로 인정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원하신다. 그분은 모든 문제나 염려의 중심이시다. 그분은 모든 행동의 축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건과 상호작용의 한도를 정하신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가증이며, 개탄할 만한 흉악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에 대한 파렴치한 거역이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겐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하나님이 함께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말고(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므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못합니다.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히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조차 조금 두렵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두려움과 교만 중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리 행동했을까?
3.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리 행동했을까?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6 고난은 지나가야 하는 길

테오프락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시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4~26절

모든 진실한 크리스천의 삶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고난받고 죽어야  
할 십자가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료다. 우리는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영원한 삶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의상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된 본질은 믿음의 시험이다. 이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일시하며, 주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거의  
인용되지 않는 성경의 약속에 대해 언급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의 죄와 수치심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 하지만 테오프락시 삶의 길에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라는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이해하려 애썼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마가복음 8~10장에서 볼 수 있다. 마가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 길에 대해 담담히 서술한다.

마가복음 8장 22~26절에는 색다른 두 단계의 기적이 나타나 있다. 이 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맹인을 고치기 위해 두 번의 시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묘사된다. 첫 번째 시도에서 그 맹인은 여전히 희미하게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야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두 단계 치유의 기적에 내포된 전체 의미를 모두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흥미롭게 나타낸다.

마가복음 8장 27~30절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물으신다. 마치 중간 시험을 보듯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고 그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며 5점 만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다. 나는 언제나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원하셨던 것이라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나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제자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 그 시점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 혼동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치유 시도 후 맹인의 시야와도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선포하기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33절에서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과 죽음 및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다. 이는 베드로에게 상당한 오만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행동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33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셨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을 대조해서 보여주신다. 사람의 관심은 권력과 영광, 편안과

안락함에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 죽음, 부활, 영광의 길이므로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무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가르치신다(마가복음 8장 34~38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34절).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이 메시지에는 두 번째 십자가인 ‘우리의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마가복음 9장 1~13절)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특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언제나 말을 많이 하는 베드로는 산 위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초막을 짓자고 말한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겪은 이 경험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며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며(12절)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다고(9절) 재차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맨 앞에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14~29절에는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신 것이 나타난다. 이후 제자들은 그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마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참고하라)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시며 자기 부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이 승리에 집착하는 과정이 아닌 기도, 겸손,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마치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도록 결심하신 듯이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마가복음 9장 31절).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마가복음 9장 32절).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3~37절에서 자신들 중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논쟁하며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꼴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35절)고 대답하신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큰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십자가라는 개념은 첫 번째 십자가인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불쾌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38~41절에서 열두 제자들은 종파주의, 배타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무지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그들을 타이르시며 섬기는 자들(즉,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는 사람)의 은혜와 겸손을 칭찬하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마가복음 9장 42~50절에서 담론을 계속 이어 나가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하여 죽는 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신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낫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하나됨과 평화는 겸손, 즉, 진실성의 증거다(50절).

마가복음 10장은 결혼(10장 1~12절)과 어린이(10장 13~16절)에 대해 다루는 짧은 일화와 함께 시작된다. 이 일화에서 세상에 팽배한 태도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오른 사람의 겸손한 섬김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31절의 일화에서는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다. 예수님과 그 청년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21절)라고 쓰여 있다. 그 청년은 매우 슬픈 기색으로 떠났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행동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그는 계속 부유하게 살거나 모든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 하늘에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대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 우리가 이 두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왕의 불타오르는 영광 속에 사는 대신 저열한 욕심이 드리우는 일시적인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신다.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은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혼란스러워진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들은 여전히 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한 말을 통해 균형을 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안전하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희생에 대해 인정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10장 29~30절).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다.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된 속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끝을 맺으신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10장 31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메시아를 따르는 것에는 박해가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가 더 당황했던 것 같다.

마가복음 10장 32~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이래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다가올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신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 즉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당황하셨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마가복음 10장 38절). 하지만 이 대답은 나머지 열두 제자들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 또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 섬김, 희생이 큰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신다(마가복음 10장 42~45절).

부활 전까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십자가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고(사도행전 3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 뛰어난

말씀씨로 적는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두 십자가에 대해 알고 말하지 않는 한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의 십자가 중 하나를 생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다. 영원을 향한 우리의 길 위에서 영광과 명예가 풍성히 따라올 것이지만 이 길에 지름길은 없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동안(마태복음 4장 1~10절) 사탄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지름길을 제시했다. 예수님은 그 지름길들을 거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 우리도 이같이 해야 한다.

나는 마가복음 8~10장에 걸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 대해 인내하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느리게 깨닫는지에 대해 놀라곤 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수십 년간 기초적인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아직도 전부 익히지 못했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나는 성경과 여러 다른 영적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나는 여러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한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내심이 많은 분이시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인내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거꾸로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그늘이나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통이 아닌 영원한 현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길은 영광과 안락함이 아닌 희생과 봉사가 인도한다.

인도로 파송된 유명한 선교사인 에이미 카마이클은 *어둠 속의 등불 (Candles in the dark)*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달콤한 액체가 가득 담겨 있는 컵은 갑자기 깨지더라도 쓴 맛 나는 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싫어한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카마이클은 자신의 시 “그대에게겐 흉터가 없는가(Hast Thou No Scar)”에서 두 번째 십자가의 개념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잘 묘사했다.

그대에겐 흉터가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 손에 가려진 흉터도 없는가?  
 그대를 이 땅의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대의 밝고 떠오르는 별을 환영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대에겐 흉터가 없는가?  
 그대에겐 상처가 없는가?  
 하지만 화살에 상처 입은 나는 기진맥진하구나.  
 갈기갈기 찢어진 나는 나무에 기대 죽음만을 기다리는구나.  
 맹수들은 나를 에워쌌고 나는 기절하고 말았구나.  
 그대에겐 상처가 없는가?  
 어떤 상처도 없는가? 어떤 흉터도 없는가?  
 주인 된 자는 섬기게 될 것이지만,  
 나를 따라오는 발에는 못자국이 있지만,  
 그대의 발은 온전하구나. 그는 먼 곳까지 따라올 수 있었다.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에 예외가 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청년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나와 내 아내는 선교사로서 이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그들 중 처음으로 주님께로 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대화 도중 나는 그에게 어떤 확신이 들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 슬픔, 악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오직 완벽하게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당신은 저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고난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한 깨달음이 테오프락시 삶의 일상이다.

우리가 주님을 미쁘신 창조주로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이 삶의 문제들을 헤쳐 나간다면(고린도후서 4장 17절),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로마서 8장 28절), 이들 확신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마주칠 때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므로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다(요한복음 11장 35절). 하지만 희망 없는 비탄이 아니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 묵상한 후 확신을 가지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안다. 어떠한 문제나 슬픔도 이를 아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확신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덜 깊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깊게 느낀다. 우리는 영원한 감정에 대해 묵상해 보았다. 이 감정을 세상의 감정과 비교할 때면 세상의 감정은 창백하게 변한다.

감정 명세서의 뒷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천성이 낙천적이거나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내 천성은 곰돌이 푸에 나오는 비관적인 당나귀 이요르에 가깝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나의 우울한 인생관을 잘 달래 주고 계신다. 내가 테오프락시 삶을 사는 법을 배울수록 내 안의 기쁨도 점점 더 많아진다.

최근 몇 년간 내가 멘토링하는 사람들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아마도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일 것이다. 나는 “재미”가 어떤 사람이 테오프락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지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타내 준다.

재미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또한 주님이 특정 어려운 상황을 그분의 영광과 영원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미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요한복음 10장 10절).

물론 테오프락시 삶은 게임이 아니며, 재미가 전부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여움, 좌절, 갈망, 질투, 분노, 초조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장단을 맞추는다면 그분의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만 옳은 방법과 옳은 이유를 들어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를 왜곡하고 그분의 영광을 무시할 때 우리가 속상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울하신 분이 아니었다. 사실 예수님은 잔치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이셨다(누가복음 7장 34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심지어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기념일을 지내고, 축제를 열어 즐겁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 그분은 사랑과 즐거움은 물론 유머 감각도 있으신 분이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 장단을 맞추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하나의 열정에 마음을 쏟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특히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반영하고, 선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감정은 이러한 최우선적인 열정의 표현 또는 이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나의 감정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영광에 빚대어 상황을 평가할 때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기도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의 편안함은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저의 선함과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적어도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인생은 짧고 영원은 깁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어려움은 가볍고 순간적입니다. 제가 기꺼이 제 십자가를 지고 겸손, 고난, 희생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지금 그리고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여 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의 필요성도 완전히 깨달았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고난에 대한 내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 (젊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대가나 희생이 있는가?
3.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두 십자가에 대해 모두 나누는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부 2

테오프락시의  
통합적인  
측면





# 7 새 언약

새 언약으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능력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에서 나온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34절

언약이란 두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그들의 관계를 정의한다. 성경을 보는 한 가지 관점은 성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일련의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와(창세기 6장 18절, 9장 9~17절), 아브라함/아브람과(창세기 15장 18절, 17장 1~21절), 이삭 및 야곱과(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 창세기 26장 2~5절, 창세기 35장 11~12절), 모세와(출애굽기 24장 7~8절), 다윗과(사무엘하 7장 8~17절), 그리고 솔로몬과(다윗과 맺은 언약의

연장, 열왕기상 9장 1~5절)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번이나 자신들이 언약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언약을 갱신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요시아(열왕기하 23장 1~3절, 역대하 34장 31~32절) 및 여호야다(역대하 23장 16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갱신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구약(모세 언약)과 신약(새 언약)에서 매우 다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부르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분리가 있었다. 이 개념은 성막, 이후에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1년에 한 번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히브리서 9장 6~7절).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모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경우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신명기 28장 2절). 역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경우 하나님은 저주를 약속하셨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신명기 28장 15절).

구약 시대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신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하신 언약과는 다르다. 새 언약은 영원하다(이사야 59장 21절, 예레미야 32장 40절 및 50장 5절, 에스겔 16장 60절, 37장 26절).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장 33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11장 19절 또한 참고하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예레미야 32장 40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짧게 말하자면 옛 언약의 범위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구약에 있는 주요한 두 언약이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갈라디아서 3장 16~18절).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6~1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종종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로마서 9장 3~8절).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명확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 언약을 통해 바로잡아진다(로마서 4장 1~25절, 갈라디아서 3장 26~29절).

모세 언약은 그 기반으로 인해 불충분했다. 부분적으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기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에 따라 동물의 희생으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일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었다(히브리서 9장 6~14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더 나아가 약속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다.

우리의 천성이 사악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옛 언약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 외부의 법은 어떤 진리가 담겨 있더라도,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 수 없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면 스스로 변화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모세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성,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믿음에 기반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갈라디아서 3장 19~29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3장 24절).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4절)

아브라함 언약에는 이에 따른 표식이 있었다. 바로 ‘할례’다. 새 언약에서 이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례(또는 침례)다(골로새서 2장 9~12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례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증명했듯이(창세기 17장 1~14절, 23~27절), 우리에게 세례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마태복음 28장 18~20절).

모세 언약은 반복적인 희생으로 구별되었다. 새 언약은 영원한 한번의 희생으로 구별되지만, 주의 만찬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누가복음 22장 19~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 이는 개인 및 집단적인 측면에서 우리 생명의 원천을 기억하게 한다.

신약을 믿는 사람들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며(요한복음 15장 15절),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지성소에 가까이갈 수 없게 했던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문자 그대로 찢어진 것이다(마태복음 27장 51절).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새 언약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새 언약의 축복은 순종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으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에베소서 2장 8~9절).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기반하고 있다(고린도후서 3장 4~6절).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린도후서 3장 17~18절). 이것은 테오프라시 삶을 아주 잘 설명한다.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통합적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새 언약 또한 본질적으로 통합적이다(에베소서 2장 11~22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모든 종족, 언어, 민족에서 온 제자들이 유대인과 함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베드로전서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다면 모든 세상적인 구별은 사라진다(갈라디아서 3장 26~29절).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통합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여 비교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히브리서 8장 1절~10장 18절에서 이러한 비교는 절정에 달한다. 새 언약은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며, 외부적이지 않고 영적이며, (우리의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고정적이다.

이후 저자는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요약한다. 즉,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히브리서 10장 19~25절). 또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10장 32~39절).

11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 구약의 예시를 든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예시로 제시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으로 주제가 확장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지지하고 강하게 하는(히브리서 12장 12~13절) 징계(12장 4~11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어려운 상황에서 괴롭고 부도덕한 마음이 아닌 평안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12장 14~17절)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 장의 끝을 맺는다(12장 18~29절).

13장은 새 언약 아래 주님과 관계가 지닌 본질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관계와 성품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히브리서 13장 1절), 낯선 이를 잘 대접해야 하고(13장 2절), 갇힌 자와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13장 3절), 배우자를 존중하며 신의를 지켜야 하고(13장 4절),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13장 5~6절).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하고

(13장 7절),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13장 12~14절).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13장 15절)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뉘야 한다(13장 16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안에서 동행하는 것 등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위한 원천과 동기에 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의 행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 내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써 살아 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하실 때 더 자라나도록 열망하는 것이다.

에스겔은 돌 같은 마음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를 들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새로운 마음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다. 두 언약 모두 통합적인 문맥에서 주어졌다.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동료 제자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이다. 이 가족적인 관계가 우리의 상호작용을 정의한다. 우리가 가족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우리를 정의한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워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과 사망에서 풀려났고 성령님을 통해 자유롭게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희도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아직도 옛 언약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2. 다른 사람이 새 언약의 놀라운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3. 내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제공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4.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에 기반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5.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6.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8 새 계명

---

사랑은 테오프라시를 정의하는 성품이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35절

사랑은 테오프라시 삶을 가장 잘 정의하는 성품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특히 믿음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태복음 22장 34~40절)의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신 날 밤에 체포되셨는데(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그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주셨다. 사람들은 가끔 이 연결고리를 놓치곤 한다. 새 언약은 공관복음(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새 계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후에 요한은 이 메시지를 자신의 편지에 다시 적는다(요한 1서 2장 7~8절, 요한 2서 5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들에게 서로 똑같이 행하라고 명하신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속이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3장 1절).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겔옷을 벗어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13장 4~11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13장 12~15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식사를 계속하시며 바로 그 식탁에 앉은 사람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장 34~35절).

이 새로운 계명은 구약의 버전과 유사하지만, 새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문구, 즉, 하늘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주목한다. 이것은 모범이나 기준이 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새 계명은 그 계명에 순종할 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믿기 힘들면서 두려운 사실이다. 믿기 힘든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운 이유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마태복음 5장 43~4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전도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테오프락시의 온전한 경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테오프락시 삶에서 이것은 전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새 계명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그날 예수님은 그분이 발을 씻기신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정도를 나타낸다.

훗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6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랑과 하나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다.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제자인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이러한 사랑을 현실에서 증명할 것을 촉구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0~23절

놀랍지 않은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와 같은 정도의 하나됨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강조를 위해 이 구절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에 증거가 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 즉,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종종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온전하고 통합된 테오프락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

예수님은 배신당해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새 계명과 새 언약을 모두 주셨다. 만찬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뜻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논쟁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누가복음 22장 24~27절).

4세기 교회의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갈라디아서에 대해 주석을 달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요한이 매우 늙고 병들었을 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가 왜 항상 동일한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 이것을 지키면 충분하다오.”라고 대답했다.

요한의 서신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요한복음 13장 34~35절, 15장 12절, 17장, 요한1서 3장 11절, 23장, 4장 7절, 11~12장, 요한2서 5장). 바울 또한 이 계명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로마서 12장 10절, 13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에베소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4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베드로도 마찬가지다(베드로전서 1장 22절, 4장 8절, 5장 14절).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해 가장 실질적인 시험은 아마 돈일 것이다. 우리가 돈에 관해 희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우선순위에 얼마나 빠르게 빠져들 수 있는지는 놀라울 정도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교회의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 슬픈 기색으로 떠나곤 한다(누가복음 18장 18~27절). 또한 진실한 믿음은 관용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웃는다(누가복음 16장 10~15절).

역으로 말하자면 나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몇몇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이타성과 관용을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비롯하여 완전한 희생을 택했다.

이러한 관대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현상은 세상의 주머니 속에 자발적으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베이스캠프라고 부른다. 관대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4~45절, 4장 32절에서 나타나듯이 초대 교회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일정 수준의 공동 재산 및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이 베이스캠프는 제자를 양성하고 육신의 축복을 더하는 사역과 그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베이스캠프는 캠프가 위치한 공동체 또는 지역을 협력하여 섬기는 모델이 된다. 이를 통해 주변에 있는 공동체 및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의 통합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다. 닐 콜은 자신의 책 *라이징 타이드(Rising Tides)*에서 이러한 베이스캠프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언급하며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초기 사례들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음성을 듣는 모임”에서 출발했다. 널과 나는 이 모임의 열두 멤버에 속해 있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핵심 주제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향기인 것이다. 사랑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에 대해 잘 가르쳐 준다. 그 이야기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묻는다(누가복음 10장 25절).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대답하신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10장 26절).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계명을 인용하여 대답한다(10장 27절).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며 대답하신다(10장 28절).

하지만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대신에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말했다(10장 29절). 그 율법교사는 율법적인 정의를 원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답하신다. 그 사마리아인은 증오,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강도당하고 심하게 맞은 유대인을 도왔다(10장 30~37절).

이 이야기에서 강도당한 유대인을 보고 지나친 종교 지도자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쁜 사람들이었다. 다친 사람을 위해 돌보기 위해 멈추면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들어 하신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몇몇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에 초대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떡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25장 34~36절).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보고” 그렇게 하였냐고 물을 것이다(25장 37~39절).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25장 40절)고 대답하실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떡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태복음 25장 41~43절).

그리고 이들 또한 놀라며 “주여 우리가 어느때 주를 보았나이까”하고 물을 것이다(25장 44절).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25장 45절)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또는 베풀지 못한) 친절을 매우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것이다(25장 40절). 즉,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보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끓주리고, 목마르고, 부족한 사람들 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삶을 산다. 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온 자신을 정당화한 율법교사처럼 핑계를 대며 산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인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 4장 7~8절).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으로써 구원을 얻어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우리의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한다(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요한복음 17장 21절, 23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요한복음 17장 23절).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깊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 또는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존경한다. 우리에게겐 명성이라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성취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3장 1~3절, 8~10절). 테레사 수녀는 이에 대해 잘 표현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행동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에 더 큰 관심을 두신다. 나는 내가 멘토링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역의 깊이에 더 큰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의 넓이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멘토 중 한 명이었던 빌 스미스에게 배웠다. 이 말에는 마태복음 10장 8절(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과 누가복음 16장 10절(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에 나온 영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위로가 된다. 우리가 주는 선물의 크기가 아닌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동반되는 신실함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진심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신다. 성전에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 부자와 작은 동전 두 잎을 내는 가난한 과부를 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누가복음 21장 3~4절). 하나님의 눈에는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큰 헌금이었다. 과부의 작은 헌금은 진심이 담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녀에겐 커다란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나는 대인 관계 기술이 부족한 천성이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다. 사람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다른 사람을 볼 때면 “나에게도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곤 한다. 내 성격으로 인해 나는 대중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사역에 대한 나의 노력이 스스로에게는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빈약하며 안쓰럽게까지 보이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치하해 주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내 노력을 섬김과 사랑의 헌신으로 여겨 주신다.

또한 우리의 역부족을 넘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패턴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다(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여기에는 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랑은 테오프락시 삶에서 가장 주요한 성품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새 계명에서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셨다. 이러한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돕는 실질적인 행위에 따라 입증(또는 부정)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혀 준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행위의 크기가 아닌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특히 제 그리스천 형제, 자매들에게)에게 이와 같이 행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율법교사처럼 저는 사랑에 대한 제 의무를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제한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하셨듯이 제가 이웃을 위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2. 내가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가? 아니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3.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 언급된 성품이 내 인생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9 함께 하나님께 경청하기

---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개인적 관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5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12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수준에서도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그 결과는 획일화가 아닌 하나됨이기 때문이다.

먼저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하나됨과 큰 관련이 있다. 고린도후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바울, 아볼로, 게바)을 따름으로써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룬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2장의 끝까지 바울은 일인칭을 복수형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성령으로(2장 10~13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2장 6~9절).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2장 8절, 14장 16절).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 복수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듯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상호 의존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도 그분의 완전한 목적을 밝히시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같은 곳에서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같은 음성을 듣는 데서 오는 하나됨이나 일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협력이나 화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안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합심해서 듣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과 성격으로 인해 나는 이 가르침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는 데 익숙하다.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가끔은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실질적인 삶의 패턴 한 가지는 “음성을 듣는 모임”이었다. 2000년대의 일이다. 12명 정도였던 우리 모임은 약 6개월에 한 번 며칠씩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30분 또는 1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을 나누기 위해 모여서 이들 메시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곤 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함께 진행했다.

처음에 우리의 노력은 조금 여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 더 잘 알고, 서로 더 신뢰하게 되었다. 몇몇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함께 모인 시간으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했던 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합쳐서 일관성을 갖추고 통합된 메시지로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 기본적인 방법은 다양한 문맥에서 적용될 수 있다. 굳이 사전에 며칠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참여자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 속 방향 또는 행동과 관련하여 주님의 의지를 알고자 하는 제자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임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조직 내 사람들과 진행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친구나 가족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상호 헌신과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코끼리를 처음으로 만난 어떤 장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상기시켜 준다. 각 사람은 코, 꼬리, 허리 또는 다리 등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만졌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큰 뱀 같아.”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 같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는 벽 같아.”라고 말했다. 마지막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같아.”라고 말했다. 그들 모두 자신이 만진 것을 정확히 묘사했다. 모두 옳은 것이다. 하지만 각 사람은 코끼리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르고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각자 관찰한 것을 합친다면 코끼리에 대해 더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이고, 우리 각 사람은 각자만의 부르심, 재능,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메시지를 서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몸에게 보내시는 통합된 메시지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큰 일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은 물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스케줄 또는 상황이 음성을 듣는 모임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믿는 자들로 구성된 어떤 모임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과 청지기 정신을 구할 수 있다. 공동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모임이라면 반복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을 실행하는 것은 모임에 여러 인원이 섞여 있으면 어려워진다. 즉, 한 모임 내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성령님과 활발히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면 모임이 어려워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어떤 위험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경고(예: 고린도후서 6장 14~18절)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는 또한 마태복음 18장 15~20절에 나온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지침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린도전서 5장 9절~6장 11절).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하나되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공동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각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서로 꺾어야만 명확해지며,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음성을 듣는 모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장단보다 다양한 서로 다른

장단에 맞춰 행진한다. 그 몸의 각 지체인 우리는 오케스트라에서 같은 장단에 맞춰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으로 듣는 것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과 세례자 요한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쟈동뽀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6~19절

예수님과 요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했다. 물론 사역에 대한 예수님과 요한의 접근 방식 및 몸가짐은 매우 달랐지만, 예수님과 요한 모두 “같은 페이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은 상호 보완적이며, 예수님과 요한 모두 서로가 기여한 바에 대해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민감하고 솔직 담백하게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린도후서 6장 14~18절)는 계명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신랄한 말로 거센 비난을 하셨다(마태복음 23장 1~39절).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점을 들으셨다(요한복음 8장 47절).

이는 우리에게, 아니면 최소한 나에게서는 불편한 사실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평안 속에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특히 교회의 일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을 다룰 때 주님께에서 오는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회의 권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 권징은 교회의 근무자나 관련한 경우나 성적인 죄에 한해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교회의 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 괜찮은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만 빠르게 잊어버린다. 그들이 들은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주님께 구하도록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다.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기보다는 일대다 대화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인들이 활발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교회의 권징이 실시되는 얼마 안 되는 경우에서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신 패턴, 즉, 필요하다면 마지막에는 문제가 되는 교인을 배제하는 패턴(마태복음 18장 15~17절)이 지켜지지 않으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한 회복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행하라는 권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이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은 획일화가 아닌 하나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설계와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일,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진실과 의지의 서로 다른 부분을 나눠 주신다. 우리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 특히 하나님의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로마서 14장 1~23절, 특히 4절을 참고하라).

바벨탑에서(창세기 11장 1~9절) 언어를 흠뜨려 놓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항상 그렇듯이 사람의 의도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셨다.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탄생이었다.

이 동일한 원칙은 하나님이 몸에 주시는 영적 선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보다 위대한 관점에 대해 각 사람이 지닌 고유한 측면을 나눌 때 음성을 듣는 모임의 패턴 속에서도 적용된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음성을 듣는 모임의 목적을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듣고 동일한 의견을 통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가끔, 특히 예루살렘 회의(사도행전 15장)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것이 맞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은 이때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관된 확신을 통해 협력하여 주님의 조언을 구한다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메시지의 일부로 나눠 주시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법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각 사람이 같은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를 각 사람이 듣고

반응하게 하시는지 알기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고 섬기기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듯이 각 사람을 필요로 하기 원하신다.

핵심적인 헌신 또는 도덕성에 관한 일부 문제는 모든 신자에게 일관성을 요구하지만, 많은 문제가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다방면에 걸쳐 총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경우 이를 통해 개인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여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의 핵심은 여호수아 5장 13~14절에 기록된 여리고 전투 전 여호수아의 경험에 잘 묘사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편”에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인지 묻는 질문인 것이다. 우리가 모두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온전하고 수준 높은 하나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 깨닫고 겸손, 섬김을 포함한 하나님의 인품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실된 상호 간의 순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로 합쳐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이사야 55장 9절).

## 기도

주님, 제가 혼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 형제, 자매들과 발맞춰 걷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면 주님의 의지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한데 모여 주님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모임 구성원들이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통합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러한 경험에 누구를 초대하기 원하는가?
2.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3.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0 삼위일체는 하나됨의 모델

---

삼위일체가 하나됨같이, (우리가 테오프라시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0~23절

삼위일체는 수수께끼다.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순, 즉, 삼위합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시작 부분의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복수형으로 언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구약 전체에는 더 많은 힌트가 흩어져 있다. “주님의 영”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님의 천사”가 다양한 형태로 신현(theophany)한 것이 그것이다.

신약에 들어서 삼위일체는 더욱 명확해진다. 예수님의 세례(마태복음 3장 16~17절) 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전부 언급된 지상 명령(마태복음 28장 19~20절), 바울 서신서의 기도(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일화가 그 사례다. 하지만 삼위일체 속 관계의 본질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17장 20~26절에서 엿볼 수 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언급된 상호성과 하나됨은 전통적인 논리를 부정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17장 22절).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준다(17장 22, 24절).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다(17장 24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다(17장 26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만 구별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됨의 영원한 유대,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존중 속에서 존재한다. 멋지지 않은가?

심지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우리를 이 수수께끼 속으로 초대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17장 21절).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17장 22절).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은 우리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다(17장 23절).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과 함께 있기 원한다(17장 24절).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삼위 속에 그러한 하나됨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서로 간에 이와 같은 하나됨을 나눈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힘들다. 이러한 하나됨은 성령님 덕분에 가능하다. 요한복음 16장 13~1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통역사이자 소통의 담당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테오프락시의 마음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행하심, 소망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바울은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에베소서 4장 1절).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이다(2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특징으로 성령의 열매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든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바울은 요점인 ‘하나됨’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4장 3절) 지켜야 한다. 하나됨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4장 4~6절).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유산을 생각해 봤을 때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다. 분열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나, 성령님과 그분의 열매로 충만하지 못할 때, 즉, 테오프락시 삶을 살지 못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된다는 것은 획일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반대로 몸의 다른 부위에 따라 다른 은혜를 받았더라도(4장 7~16절) 모두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께 고유한 역할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각기 다른 역할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도록, 믿음에서 하나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하나되도록, 성장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4장 13절) 서로를 보듬어 줘야 한다(4장 12절). 이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상호 간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4장 14~15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일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4장 16절).

바울은 순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죄, 이기심, 불성실, 노여움, 분노, 게으름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4장 17~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다(4장 3절).

테오프락시는 팀 스포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다. 또한 새로운 형제, 자매도 생긴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쓴 요한1서의 근본 주제 중 하나이다.

요한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1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1서 4장 7~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1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요한은 두 가지 근본적인 요점에 대해 말한다. 먼저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깊고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재적 모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분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입증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서로 상호작용하여 성숙하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모두 이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룬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해 수백 번 강조한다.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나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것이 불편하다. 나의 타고난 천성은 독립적이고 내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는 이 같은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할 필요가 있다. 교인을 이러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내 천성이 아니다.

이 구절을 포함해 다른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이 같은 분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경에는 각 개인이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단계가 나와 있다.

먼저 우리는 쉽게 손을 들고 항복해선 안 된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3절, 골로새서  
3장 14절, 로마서 15장 5~6절, 빌립보서 1장 27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또한 참고하라)

바울은 크게 분열되어 있던 교회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그 교회는 각기 다른 리더를 따르는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고린도전서 1장 12절). 바울은 그들에게 이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상을 추구할 것을 권면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됨을 추구한다. 빌립보서 2장 1~11절에서 바울은 하나됨이란 자기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됨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방식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추구한다. 바울은 다른 계획을 제시한다. 그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춧돌에 대해 강조하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2장 1절). 그다음 그는

목표인 하나됨에 대해 말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2장 2절, 강조 추가됨).

바울은 이 목표에 대해 말한 후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됨을 달성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4절)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그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 마음을”(빌립보서 2장 5절) 품어야 한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광에 대한 그분의 권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빌립보서 2장 7절) 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장 8절)라는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시고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셨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기꺼이 고난받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빌립보서 2장 9절) 주셨다.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자기를 내어놓음은 삼위일체의 본질을 구성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요한복음 16장 13~14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요한복음 8장 54절). 아버지는 만물을 아들의 주권 아래 두실 것이며, 아들은 만물을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고린도전서 15장 24~28절).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때 이를 따라해야 한다(로마서 12장 10절).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사이의 다름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잘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똑똑하다면 다른 똑똑한 사람들을 동경한다(그리고 덜 똑똑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우리가 잘생겼고, 조리 있고, 근면 성실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신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서로 다르게 지으셨다. 그분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지으셨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4~18절)

우리는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눈치채는 편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이에 대해 잘 바로잡아 준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의 날에 형제, 자매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세우실 권능이 있다. 나에게 비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나는 주님께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킨다. 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이시다.

또한 개인적 선호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한 신자는 다른 사람의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이 선호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지(또는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다든지), 설교가 너무 길다든지(또는 충분히 길지 않다든지)와 같은 것들 말이다. 왜 토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는가? 왜 이제는 수요일 저녁 기도회나 어와나, 엄마와 유아들 모임(MOPS)을 하지 않는가? 이 문제 중 어떤 것들도 성경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은 관점, 전통 또는 선호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서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성숙함의 증거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요점이다. 바울은 논쟁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바쳐졌을 수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어떤 날에 경배를 해야 하는가? 바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로마서 14장 13, 19절)

본질적으로 분열은 죄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테오프락시 삶을 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와 공동체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및 17장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에 대해 다시 상기시킨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이에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13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 구절에 나오는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 편지를 썼던 그 교회다. 이 교회는 자신이 따르는 사람에 따라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분열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바울은 사람에게 충성함으로써 몸을 분열시킨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고린도전서 3장 3절) 행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그들이 따른 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람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담당하셨던 것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질이 중요하며, 각 사람은 이 기준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23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분열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특정 교사, 작가, 신학자, 교파, 사역 네트워크 또는 사역 기술에 대해 가지는 각자의 선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분열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관계를 규정하는 불화와 적대감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교만, 시기, 억울함, 불신, 업신여김은 너무나도 흔해졌으며, 특히 교회가 지나치게 편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곳에서는 더욱 심하다. 분열의 경계는 더 작은 원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됨을 방해한다.

나는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되어 결국에는 개인이 최고가 되는 세상의 나라가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문제는 단순하다. 우리는 하나됨의 원천을 알고 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경험하기 원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은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명확히 말씀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복음 15장 4~5절).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된 놀라운 결과와 약속을 여러가지 말씀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17절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신다.

따라서 테오프락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도하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많은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막을 수 있다. 내 마음속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조직의 생존에 대해 만연해 있는 걱정과 관련이 있다. 교회 또는 기독교 조직이 커질수록 이러한 생각이 침투할 위험은 더 커진다. 조직 또는 교회의 변영을 하나님 나라의 변영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은 개별 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나 행동을 배제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조직적 실용주의로 이어진다. 우리가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타인(또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조직의 생존 및 변영과 관련된 실용주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됨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된 속성으로 인해 주님은 종종 조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전에 개인적 문맥에서 논의한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은 통합적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희생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빵과 버터다. 희생과 죽음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것은 개인적 관점은 물론 통합적 관점에서도 진리다.*

우리는 개인과 조직으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집중과 걱정에 대한 대화의 결말을 내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로 걱정하는 것들, 즉, 돈, 음식, 옷, 삶 그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 논의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책임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원리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적 희생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는 기독교 음악가인 키스 그린의 설립한 라스트 데이 미니스트리(Last Days Ministries)다. 전자 음악이 널리 퍼지기 아주 오래전에는, 음악을 나눠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라스트 데이는 자신의 음악을 구매자가 원하는 값에 “팔았다”. 결과는 아주 많은 공짜 “판매”였다. 이는 그린이가 1982년 28살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요절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라스트 데이의 자금 사정은 여유롭지 않았다. 이렇게 음악을 퍼뜨리는 방법은 사역 초기부터 그 사역을 말려 죽이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키스는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가 취한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의 완벽한 본보기다.

제자도에 대해 혁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키스 그린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하나님됨은 표면적으로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점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같은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인 수입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희생한 키스의 헌신은 이러한 정신의 훌륭한 본보기다.

하지만 안 좋은 예시도 아주 많다. 나는 미국의 거대한 도시에서 제자 양성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다. 어느 날 밤 큰 현지 교회의 리더십 중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몇 명과 몇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우리의 만남 끝에 그들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전트 씨가 제자 양성에 대해 제안하시는 방법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 방법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최근에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넘는 대출을 받았으며 현금이 줄어들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방법을 바꿀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으로 나는 그 솔직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조직의 번영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몇십 년에 걸쳐 명확히 해 온 매우 크고 잘 알려진 두 기독교 사역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면 자신들에게 수입을 제공해 주는 교회와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밥줄이 끊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확한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내 기분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두 기관 중 한 기관은 기존에 취한 입장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전향하여 공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기관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려 하지만 다른 한 기관은 그렇지 않다.

공동체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있지만 그 원리를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는 경우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해 강하게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외시하는 환경에서 종종 일어난다. 이는 결국 정체, 타협 또는 분열로 이어진다.

반면에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경에 무지하거나 성경을 해석 및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종종 상호 배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 또한 마비나 분열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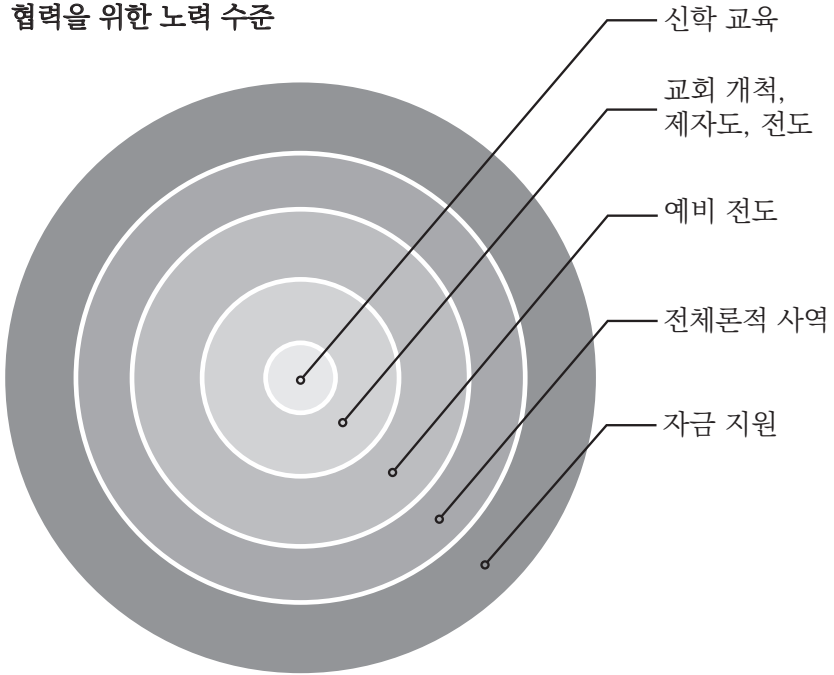
이전 장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영적 하나됨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내가 하나됨에 대해 말할 때에는 단순히 모두 잘 어울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평화의 정의를 적대감의 부재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이는 기껏해야 불충분하고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그분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하나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의 공동 노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적 수준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양한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더욱 늘려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 명목상 기독교인 흐름 속에서 조직 수준으로 실행하거나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조직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하며, 전 세계 신자들의 몸 속에 분열이라는 고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1970년대에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이 창설된 배경이 되었다. 이 운동의 슬로건은 “온전한 복음을 온세상에 전하는 온전한 교회”였다. 물론 이 운동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됨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른 노력이 있어 왔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은 행동보다 쉽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담았다. 다이어그램의 중앙에 가까운 사역적 측면일수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고리의 가장 바깥쪽에는 몇몇 문제에 대해 명백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연대가 있을 수 있다. 가끔은 바깥 고리에 집중함으로써 시작된 관계가 이후에 보다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종종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됨에 대한 증거가 더 먼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

**협력을 위한 노력 수준**



## 기도

주 예수님, 주님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되게 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에게서 나왔으니 제가 그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으신 각 사람의 다른 점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 선호를 포기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제 마음속의 목소리를 잠재워주세요. 저에게 평화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공동체적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 안의 내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와 하나됨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2.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의 리더로서 따라야 하는 단계가 있는가?
3. 나의 행함과 내가 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1 하나님은 소통의 모델

---

하나님의 소통은 개인적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권위가 있다.  
우리는 적절히 반응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

---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3~35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삶에 넘쳐나는 다른 소통과는 달리 하나님의 소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메시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메시지는 우리와 상관없고, 의미도 없으며, 거짓이기까지 하다. 필요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소통 중 대부분을 거르거나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략적인 소통가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목적이 있고 강력하다. 이사야 55장 10~11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질문이 있다면, 내켜서 할 것인가, 또는 강제로

할 것인가이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한 적군처럼 할 것인가?

새로운 소통 기술은 정보의 필터링 및 처리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제시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종종 이 동일한 필터를 사용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른다. 이 패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거를 때는 매우 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개인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실행 가능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고 반응해야 한다.

지난 500년간 동안 소통 기술은 구텐베르크 인쇄술부터 시작해서 전보,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소통하는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대적인 소통 기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대부분의 소통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직접 전달되는 개인적인 소통이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을 때, 디모데는 “나에게 적용되는 글인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당연히 그 서신은 디모데의 것이었다.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 쓰여진 서신이었던 것이다. 인쇄술의 도입과 함께 소통은 상당히 탈맥락화되었다. 인쇄술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글을 쓰게 만들었다. 이러한 글은 더 일반적이고, 원칙주의적이며, 덜 개인적이다. 독자들은 스스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내 삶에서 실현가능하고, 내 삶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개인적 관련성에 따라 소통을 거르기 시작했으며 자신에게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무시했다.

전보의 발명은 소통의 개인적 측면을 다시 회복시켰다. 전보는 보통 특정 개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움에 관한 필터라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 냈다. 전달되는 정보는 긴급한 정보였지만, 가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새로운 사실은 다른 사실을 빠르게 밀어냈다. 일간 신문은 이러한 경향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어제의 신문은 생선을 포장하는 데나 적합하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최신이 아닌 뉴스는 뉴스가 아니므로 무시해야 했다.

라디오, 이어서 텔레비전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소통의 가치를 거의 오락의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종교 및 정치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교훈과 오락이 분리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또한 라디오와 TV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줄였다. 광고는 잘 정돈된 30초짜리 틀 안에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더욱 키웠다. 이미지와 음악이 동반된 스토리텔링은 필수가 되었다. 논리적인 토론과 통찰력 있는 분석은 1시간짜리 오락 프로그램에 끼워 넣지 않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 결과는 정신적으로는 수동적이 되고 생각하는 데는 게을러졌다. 우리는 종종 “재미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또 다른 필터를 추가했다. 재미있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 버린다.

인터넷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거르고, 훑어보고, 요약하게 하며 이러한 경향을 크게 확대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가득 담긴 용기로 포장된 데이터의 늪에 빠진다. 여기에 분석이나 평가가 요구되는 시간이나 정보가 들어갈 틈이 없다.

트위터는 간결함을 요구하는 문화적 패턴을 확대하며 사람들의 집중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고, 강렬한 인상이 중요한 문화를 유행시켰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이미지에 더욱 신경 쓰게 만들었다. 내용보다 이미지가 더 가치 있고 성품보다 평판이 더 중요해지고 실제보다 인상을 주는 것이 가치가 더 있어보인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통에는 이미지 관리가 전부다.

넘쳐나는 데이터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비할지 거르도록 만든다. 우리에게 오는 정보의 대부분을 빠르게 무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적용성에 따라(이 정보가 나와 내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가?), 최신성에 따라(오늘의 뉴스인가?), 재미에 따라(재미있는가?), 실행 가능성에 따라(이것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권위에 따라(이 사람을 정말로 믿어도 되는가?) 정보를 거른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내 핸드폰에 (약간의 이국적인 억양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음성 녹음을 받았다. “사회보장국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즉시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나는 녹음의 다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모른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몇 초 안에 진짜 사회보장국에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실제 정부 부처에서는 보통 문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한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통해 “피싱”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 내 정보를 훔치려는 사람들, 자신의 트위터를 보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빠르게 정보를 필터링하고 대부분 무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거르면서 기존의 편견을 확인하는 정보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선명하게 정의된 여러 오디언스를 이끌고, 각 오디언스는 자기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앞서 설명한 공동체의 연합 보다는 커다란 분열을 가져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점점 더 적게 듣게(성경적 의미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 된다. 기능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였던 뉴스는 맥락에서 벗어난 사실들의 집합으로 변질되었다. 정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얼마나 많은 TV 뉴스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얼마나 적은 뉴스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러한 경향은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통해 논리적인 결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평가와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정해진 일반 원칙에 기반한 컴퓨터 알고리즘에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 패턴, 분석 능력, 윤리 및 삶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내가 빅 데이터나 인공 지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아주 커다란 잠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를 데이터와 통계에서 찾고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그 데이터가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며, 우리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스마트”한 결정이 종종 옳은 결정은 아닌 거꾸로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한 여호수아(여호수아 6장) 또는 대다수의 군인을 돌려보낸 기드온을 생각해 보자(사사기 7장).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데이터를 신뢰하게 될 수 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많은 결정을 미리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듣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덜 들을 것인가? 우리의 수많은 결정을 다른 것에 의탁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결정해 버릴 것인가?

나는 데이터 또는 연구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연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1990년대에 나는 중국 가정 교회 운동의 수많은 지도자에게 선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 적이 있다. 이 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은 선교 연구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교만으로 인해 인구 조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곤 했다(사무엘하 24장 1~25절, 역대상 21장 1~30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허용하신 경우를 들어 대답하곤 했다(출애굽기 30장 11~16절, 민수기 1장 1~46절, 4장 1~49절, 26장 1~65절, 역대하 2장 17~18절, 25장 5절, 느헤미야 7장 1~68절). 나는 선교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목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국 내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 대해 깨닫는 것이었다. 선교 전략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 미전도 종족 대부분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미전도 종족에 대해 깨닫고 난 후,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온전히 듣게 해 준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래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구 및 지적인 계획 등 많은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식을 주시듯이, 자신의 결정에 기도 및 심사숙고로 공을 들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을 믿을 것인지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 대부분을 빠르게 거르고 무시하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우편물을 훑어보면서 대부분을 열지도 않은 채 휴지통에 버린다. 그러한 결정은 봉투 겉면을 빠르게 읽어보면서 내리는 것이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발신자와 제목을 빠르게 훑어본 후 대부분의 이메일을 삭제한다. 그 모든 것을 전부 읽을 시간은 없다. 이는 좋은 행동이며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러한 필터를 끄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천천히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제자도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정보를 거르는 문화적 패턴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권위 있고 강렬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생각 및 소통 방법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서로 간 상호 작용하는 패턴을 만듦으로써 가능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의 이러한 측면을 비취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소그룹, 개인적 제자도 및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담았다.

하지만 전도할 때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해야 한다. 우리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제자 양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문화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도해야 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소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을 이루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은 현시대의 문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전도에 알맞은 두 가지 다른 설교를 하는 예시가 나온다. 첫 번째 설교(사도행전 17장 1~4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설파한다. 두 번째 복음 설교(사도행전 17장 22~3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 무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바울은 메시아나 구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아테네에서 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한 그리스 시인을 인용한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예정된 심판을 언급하며 설교를 마친다.

바울은 두 가지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두 종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소통하고 있는 문화에 메시지를 맞췄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문화의 스타일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자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통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소통 방식은 개인적이고, 권위 있는 방식이며, 하나님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 듣기의 새로운 패턴을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나누도록 하려면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을 거르고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제자로 양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은 무엇을 적용할지 선택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제자도가 아니다.

그들은 정보와 행동 사이의 연결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소통 방식의 개인적이고, 상관적이고, 권위 있는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개인적 이미지와 초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기면 안 된다.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순종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유명한 교육자인 존 듀이는 “가르침의 내용은 배움에 있어서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기술은 이데올로기와 철학,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뒤의 장에서 이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다.

## 기도

주님, 주님은 제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진심을 담은 순종이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계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거르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거짓되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성경에 쓰인 말씀 또는 개인적 감동 등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메시지를 거르고, 평가하고, 어떤 메시지를 적용할지 선택하는가? 아니면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진심을 담아 순종하고 있는가?
2. 나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르도록 하는 문화적인 패턴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3. 나는 전도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패턴을 수용하고 있는가?
4. 이 두 영역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5.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6.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3 부

테오탁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념과 도구





# 12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

---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 부르신 목적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능력 받는 것이다.

---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27절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 명령은 3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묘사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좋아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에 대해 듣기  
좋아한다.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간 부분은 인기가 없다. 마치  
많은 일과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경험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적인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지상 명령에 대한 약속은 계명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약속이 그분의 모든 제자에게 하신 것이라면, 그분의 계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의 삶을 예수님과 조용히 교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누가복음 10장 38~42절)를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운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불완전하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듣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을 권면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 책의 3부에서 나는 테오프락시 삶을 위한 패턴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도구 및 실천을 제시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 습관 또는 원칙이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으며, 자신들은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살아 있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한 불평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패턴 또는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삶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 속에서 그분을 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정해진 식사 시간에 은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항상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식사가 지루하고 음식이 싱거워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식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준비한 음식이 의미 없어지는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피곤할 정도로 무한히 반복한다고 해서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가? 이러한 공허한 습관으로 인해 식사를 즐기지 않게 되는가? 아니다. 식기와 식사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 논의하는 도구와 개념은 삶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적 삶의 원칙의 토대를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이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고,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추구하고, 그분을 보다 깊이 알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고, 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 히에로니무스처럼 의식 있는 삶을 살아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종종 복음은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필요한 헌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교되곤 한다. 이러한 패턴에 빠지는 것은 쉽다. 우리는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평,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리고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헌신, 희생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하셨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46절)

누가복음 14장 25~35절에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놀라운 예시가 나와 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다른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치 군중을 몰아내려 하시는 듯이 깜짝 놀랄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27절)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 하기 전에 잃어버리게 될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포함한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나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4장 33절). 그렇지 않으면 거름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제자로서 완전히 쓸데없다고 말씀하신다(14장 35절).

놀랍지 않은가? 이 방법은 제자를 모집하는 최악의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제자를 찾고 계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가르침을 원하는가? 치료를 원하는가? 아니면 공짜 식사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일로 인해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만일 후자의 동기로 인해 따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요구는 완전히 합당하고 명확한 것이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종종 전도를 왜곡한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의 의미는 필요가 충족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부차적인 혜택이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 주목받고 특별한 상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종종 값싼 복음에 대해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기쁨 또는 편안함에 기반하여 평가한다. 제자도의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진실한 제자는 삶의 모든 측면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에 맞춰져 있다. 즉,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하게 하고 이후에 부드럽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결정이 시간에 걸쳐 빚어내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겁주지 않기 위해 제자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느리게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특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전략은 가끔 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새신자들은 소비자적인 경향의 크리스천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마치 “미끼 상술”에 걸려든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개인적 선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소비자적인 경향의 크리스천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실제로 바치지 않았거나 이기적이고 게으른 미성숙한 상태에 남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미지근하고 헌신적이지 않은 신자들로 넘쳐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에 악영향을 준다. 게다가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조차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려 하는 경향을 부추긴다.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방법을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진입 장벽은 낮지만, 길고 점진적인 성장 패턴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표현된다. 그리스천으로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혜택이 강조된다. 반면에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은, 적어도 시작 부분에서는, 경시된다.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 14장 에 나타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높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진입장벽을 먼저 제시한 후 길고 점진적인 성장 패턴을 제시하셨다. 예수님은 무한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해 설명하셨다. 문자 그대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분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 고작120명만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소수의 인원은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높은 진입 장벽이 명확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힘의 원천에 대해 시작부터 명확해진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같은 수준의 희생을 할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계다가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왕이신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시작부터 명확해진다. 주님의 모든 친절하심, 은혜, 위대하심에 대해 감사와 사랑, 희생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후에 자신의 삶의 특정 부분을 추가로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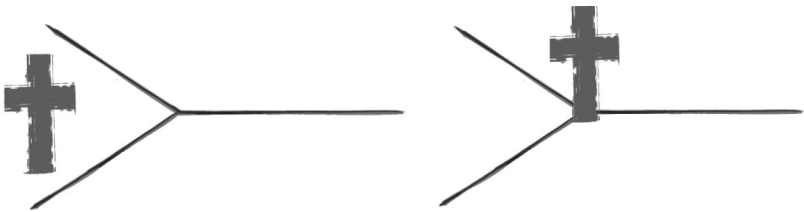
그들은 시작부터 그러한 결정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패턴의 차이점이 시편 32편 8~9절에 나와 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분의 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은 잘 훈련된 군견의 주인과 비슷하다. 군견은 사소한 눈짓이나 손동작을 통해 행동할 정도로 주인의 의지에 익숙해져 있다. 이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반응하는 잘 훈련되지 않은 말이나 노새와 대비된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주권의 절대성에 대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노새와 같다. 그들을 순종하게 하려면 강제하거나 설득해야 한다. 그들을 따르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삶의 모든 면에 걸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깨달은 사람은 주인 되시는 분의 사소한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며 단순히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아래의 그림에 누가복음 14장과 일반적인 패턴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을 제시했다. 두 패턴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을 나타낸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두 타임라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점은 삶의 모든 면에 걸친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는 시점이다.



왼쪽 그림에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변화 또는 희생에 대해 확신해야 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신자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따르기를 이미 결심했다. 실질적인 결과는 심오하며 끊임없이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난다. 세상이 교회를 위선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사실이기에 때문이다.

최근 몇십 년간 “주재권 구원”에 대한 논쟁이 전도계 내에서 진행되었다. 논쟁의 대상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지도자로 따르기로 먼저 결정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서 이 논쟁에 대해 풀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재권 구원”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소는 무엇인가?” 또는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신성, 죽으심, 구원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이다. 나에게 이 질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소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으로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최소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명확하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혁신을 원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과 이유를 변화시키기 위해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자를 삼을 때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또는 순종하게] 하라”(마태복음 28장 19~20절).

높은 진입 장벽과 낮은 진입 장벽 패턴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 하나는 우리가 새신자를 관리하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방법에서 새신자는 뒤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 전에 잠깐 동안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초점은 성경, 기도, 교회 참여를 통해 영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새신자는 수동성과 소비라는 패턴에 맞춰진다.

높은 진입 장벽 패러다임에서 새신자 관리는 매우 다르다. 초점은 새신자가 믿음의 대사로서 곧바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맞춰진다. 그들은 빠르게 전도자 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도전을 받는다. 그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을 즉시 알릴 5명을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은 복음과 간단한 간증을 전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리고 나서 어찌면 역할 연기 훈련을 통해 선택한 5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교육할 수도 있다. 그 5명 중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새신자 관리 패턴이 적용된다. 이 모든 것은 새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서약을 한 바로 그 첫날에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이 패러다임 내에서 새신자 관리와 진도 평가는 48시간 내에 실시한다.

우리는 낮은 진입 장벽 패러다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즉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약의 군대 귀신(마가복음 5장 19~20절), 세리 레위(누가복음

5장 27~30절),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장 28~30절) 일화에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다.

높은 진입 장벽 접근법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은 주님이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패턴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새겨지며 이후 그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훈련되지 않은 노새가 아닌 잘 훈련된 군견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들은 남은 삶 동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특권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인생은 기대감으로 채워진다. 다음 모퉁이에 어떤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



## 기도

주님, 주님이 저에게 뛰라는 신호를 보내실 때 꼬리를 흔들며 순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군견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노새에 더 가까워집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은 제가 순종할 분이십니다. 순종을 미루거나 저항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의 길은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고집과 망설임은 열매 맺지 못할뿐더러 주님께 영광을 가져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 저에게 들을 귀와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는가?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순종에 대한 헌신을 단호히 결의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가 아는 다른 신자의 삶에서 높은 진입 장벽 접근법을 실천할 수 있는가?
2. 나는 “낮은 진입 장벽”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복음 14장의 “높은 진입 장벽”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과 더욱 닮아가기 위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3. 새신자 관리를 맡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눌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배우게 하는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3 온맘으로 충성해야 할 하나님

---

주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서로 경쟁하는 측면 중 가장 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1”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크다. 에는 특별함, 유일함, 우월함이 담겨 있다. 진복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나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 한국인은 스포츠에 굉장히 뛰어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 시절 어느 종류의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누가 팀에서 최고의 선수인지 즉시 알 수 있었다. 그 선수의 등번호는 1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1은 최고를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1은 유일함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질투라고 언급하신다. 결혼이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만 속해야 한다. 그 밖의 어떤 것도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잘 나누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의미에서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온전히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며 경배를 다른 것과 나누기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만큼이나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거나, 찬양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사랑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생각은 비뚤어지거나 장님처럼 되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은 물리학의 모든 가치를 일관적이고 연결된 하나로 묶을 대통일이론을 진지하게 연구한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스스로를 대통일현실로서 나타내셨다. 골로새서 1장 15~20절은 예수님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창조물의 원천이자 유지하시는 분, 구세주로서 나타낸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17절)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의 원천이자 목적이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שמיי*라고 부르는 신명기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심을 다 해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신명기 6장 4~9절). 그들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으로나,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돌아갈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을 기억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합당하심과 위대하심은 그들이 헤엄치는 목상이라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한다.

1600년대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임재 연습”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대화했다. 나에게 있어 끊임없는 관계란 삶의 모든 측면을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나를 상상하는 것 대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고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려본다. 나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나의 관심을 돌려놓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것을 안경알이 두 개 있는 안경처럼 여긴다. 첫 번째 안경알은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학우)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안경알은 내 일상적인 관계 패턴 밖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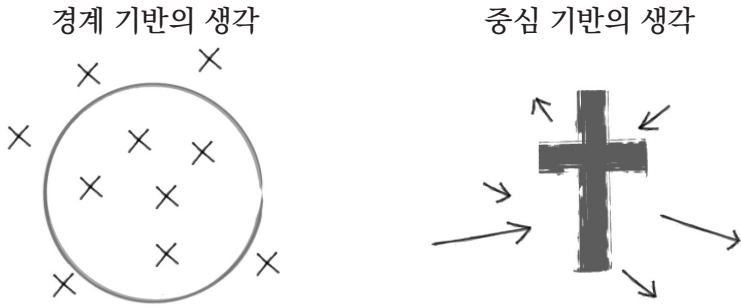
하나님은 첫 번째 안경알을 통해 나를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가족, 친구, 사교 모임 가운데 두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는 돈, 시간, 에너지 및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다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내 옆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나는 절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안경알에는 가장 마지막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비추도록 색이 입혀져 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성경에는 경멸받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잊혀지고,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예상할 수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라는 그분의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끌어당기고 계신 사람을 향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 친밀한 관계 바깥에 대해서는, 나를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이미 일하고 계신 사람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관계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한 민감함을 키우기 위해 나는 내가 교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 100명의 목록을 만들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그 목록을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3개의 범주로 나눈다. 각 사람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진다.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먼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한다. 비크리스천은 전도하고, 크리스천은 훈련하고 권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그룹에 비취 영적 상태를 바라본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개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이러한 경계 기반의 생각을 나타낸다. 두 번째 그림은 중심 기반의 생각을 나타낸다.

경계 기반의 생각에 잘못된 점은 없다. 유용하며 의의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경계 기반의 생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가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99 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한 목자의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누가복음 15장 4~7절).

그럼에도 중심 기반의 생각을 여기에 더하는 것은 유용하다. 중심 기반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특정 사람에 대한 헌신이다. 십자가를 향하는 화살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나타낸다. 하지만 화살표의 길이가 다르다. 화살표의 길이는 열정의 정도를 나타낸다. 몇몇 사람은 인생의 다른 목적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 다른 몇몇 사람은 천천히 걷는다.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지만, 다른 몇몇 사람은 미지근하게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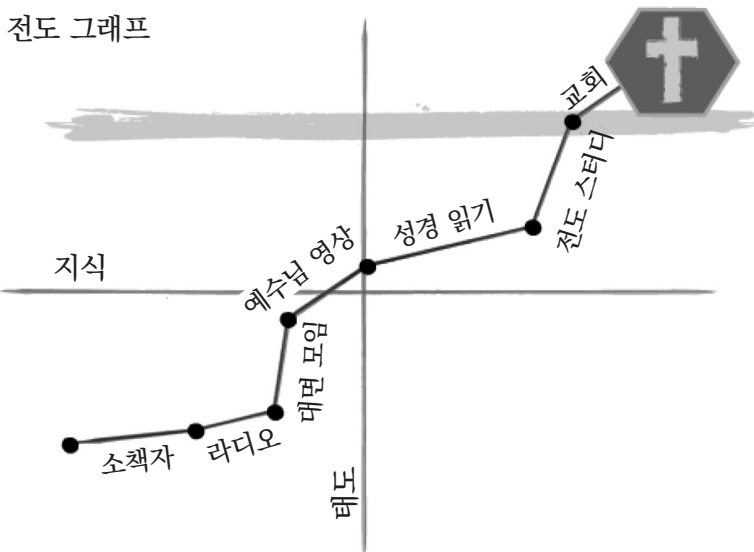
하나님의 소망(개인적으로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바란다)은 모든 화살표를 십자가를 향해 돌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죽음도 기뻐하시지 않는다(에스겔 18장 23절, 32절, 33장 11절).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시며(베드로후서 3장 9절)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 원하신다(디모데전서 2장 3~4절).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인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있는 화살표의 길이를 더 늘리기 원하신다. 이미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온 마음 다 해, 온 힘을 다 해,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신자들에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교체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는 타인의 헌신이 우리보다 낮거나 못하든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권면이 필요하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중심 기반의 생각이 여전히 유용하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우리는 화살표가 점진적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응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이러한 원리를 잘 나타낸다. y축은 태도, x축은 지식이다. 설명을 돕기 위해 사탄은 맨 오른쪽(높은 지식), 아주 낮은(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쁜 태도) 점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미약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또는 시각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래프에 나타난 여러 교점이 지식, 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 믿지 않는 사람을 십자가 쪽으로 이동시킨다. 중심 기반의 생각에서 이것은 십자가를 향한 화살표의 점진적인 회전 및 강도(길이)의 증가로 표현될 수 있다.



반복적인 접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과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크리스천과 여러 번 만남을 갖는다.

반복적인 접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 및 이들을 그 점에 더 가까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것을 통해 더 잘 신경 쓸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교제하는 모든 사람을 이 점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어주기도 한다. 여러분과 그들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께 이끌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사건들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과의 개인적 교제 그 이상이다. 여기에는 인생 전체가 관여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신경 쓰며 관여하고 계신다. 그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다(로마서 8장 18~23절).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을 돌보도록, 그리고 적절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의 패턴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그분을 알 수 있고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탐구하는 삶을 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종종 하나님께 이것 또는 저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질문하고는 한다. 이들 질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생각 및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를 이끌어 왔다. 나는 코카콜라 주식회사, 미 해병대, 자전거, 농장 일, 사진, 파동, 레펠, 카약, 악기,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 질문한다. 나는 코끼리, 토끼, 말, 노새, 도마뱀, 개구리, 불가사리, 문어, 돌고래, 거위, 오리 및 다른 동물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통신 기술, 비즈니스, 경제학, 정부, 교통수단, 교육 원칙 등에 대해 질문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제자 양성, 교회 설립, 선교 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을 신학 수업이나 신학책이 아닌 이렇게 흩어진 아이디어의 원천에서 얻어 왔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는 없다.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해 학문의 모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주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알라바마에서 일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의 인생과 그가 남긴 유산은 놀라울 정도다. 그는 터스키기 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동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발견을 해냈다. 리처드 포스터는 자신의 책 *영혼의 피난처: 묵상하는 기도로 떠나는 여정 (Sanctuary of the Soul: Journey into Meditative Prayer)*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종종 하나님을 “창조주 씨”라고 부르며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숲을 향해 걸으며 기도했다. “창조주 씨,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작은 자야, 너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크구나. 다른 질문을 하거라!” 다음 날 밤 그는 숲을 향해 걸으며 기도했다. “창조주 씨, 왜 사람[종족으로서의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작은 자야, 너에게 이 질문 또한 너무나도 크구나. 다른 질문을 하거라!” 세 번째 날 밤 그는 숲을 향해 걸으며 기도했다. “창조주 씨,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작은 자여, 이 질문이 너에게 딱 맞는구나. 내가 가르칠 테니 들어라.”

카버가 수백 가지에 달하는 땅콩 사용법을 개발하여 아메리카 남부의 경제를 뒤바꿨다는 것이 그 뒷이야기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또는 그 밖의 다른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신다. 그분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면 통찰력을 주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 민감성을 키우는 과정 중 일부이다. 스바냐 1장 12절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분명 주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계관, 즉, 세상을 해석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반성하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세계관에는 7가지 측면이 있다.

1. 인식론: 무엇이 진리인가?
2. 형이상학: 무엇이 현실인가?
3. 우주론: 자연은 무엇이며, 우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4. 목적론: 모든 것의 목적과 운명은 무엇인가?
5. 신학: 신(또는 신들)의 성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6. 인류학: 인류의 성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7. 가치론: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

내가 이 책에서 전반적인 세계관 또는 크리스천의 세계관만 꼬집어 이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은 세계관의 모든 면에서 진리의 중심이자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의 중재자이시다. 그분은 현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결정하신다. 우주는 그분의 기쁨과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분은 한없이 선하시며 위대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다. 그분만이 의미, 가치, 아름다움을 정의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전심을 다 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 또는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테오프락시(하나님께 중심과 기반을 둔 삶)가 크리스천 세계관의 본질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깊게 탐구하고자 한다면, 크리스천의 세계관과 그 의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많은 책과 강연자가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들의 목록은 christianworldview.net에 잘 나와 있다. 여러분은 이후에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그들의 관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 나는 프란시스 쉐퍼의 글이 훌륭한 시작점이 되어 준다고 생각한다. 그의 접근 방식은 쉽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는 탄탄한 가정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현실적인 크리스천의 세계관에 대한 예시다. 회의주의자들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이 장은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초반에는 크리스천의 믿음을 따라 삶을 산 유명한 영웅들의 삶에 대해 적혀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 영웅들이다(히브리서 11장 4~35절). 이들은 믿음의 삶의 유명한 “승리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승리와 명성을 선물하셨다. 하지만 이후 이 구절에는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거나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나와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장 35~38절)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고통받았던 것일까? 난 모른다. 난 이 이야기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명한 자, 무명인 자, 삶의 승리자, 삶의 패배자 모두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40절)

32~35절에서 “선한 사람들”은 노력 끝에 승리를 쟁취한다. 하지만 35~38절의 선한 사람들은 패배하고, 고문받으며, 끔찍하게 죽임당한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로서 인용된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세상적인 결과 또는 결실은 신실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있다. 가끔 하나님은 극적인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가끔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위해 이름 없이 기꺼이 고난받고 죽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에 의해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할 때 영광 받으신다. 이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합당하심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타락한 세상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며 세상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고난에 대해 설명한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좋은 결말을 맺는다.

사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세상에 널리 퍼진 거의 모든 세계관과 상충한다. 의미, 진리, 목적, 가치 또는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고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 영원한 관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

## 기도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제가 삶의 모든 면을 주님께 비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어떤 사람과 교제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더 영광과 높임 받으실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영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로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의 본질적인 토대로 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점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가?
2.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내 세계관의 특정 부분(인식론, 형이상학, 우주론, 목적론, 신학, 인류학, 가치론)이 있는가?
3. 내 삶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낼 수 있는가?
4. 나는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5. 내가 매일 마주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6. 내 일과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정기적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가? 그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7.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8.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4 3/3: 신실한 삶의 패턴

---

제자를 낳는 제자는 배우고, 행동하고, 통찰을 타인과 나누며  
활발히 성장하고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제자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10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지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의 향후 성장과 개발은 물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현재 반응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신다. 세상의 경제는 교환에 근거한다. 나에게서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예를 들어 패스트라미 샌드위치라든지)이 있고,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것(돈)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주고, 나는 그 대가로 패스트라미 샌드위치를 준다. 상대방은 돈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나는 그것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는 주면서 얻는다. 내가 공짜로 줄 때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비유(마태복음 18장 23~35절)와 직접적인 설명(마태복음 6장 14~15절)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대가 없이 나눠줄 때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주면서 얻는다.

이러한 반직관적인 원리가 신약에서 빈번히 언급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말하며(디모데후서 2장 2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로 요약한다(사도행전 20장 3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눠줄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적힌 달란트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할 책임을 지우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구약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하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람(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을 부르셨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3절, 강조 추가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우리가 받는 목적은 주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의 아버지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창세기 22장 15~18절, 26장 2~5절). 이러한 순종이 영적 경제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한번이 아닌 두 번이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는 즉각적이며, 열성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순종을 반복적으로 증명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나라, 아버지의 집, 친척들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장소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다(창세기 12장 1~4절).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랐다. 아브라함은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거쳐 광야에서 떠돌기 위해 안전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익숙한 지역을 떠나는 것이었다.

창세기 17장에는 또 다른 시험이 나와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언약의 표시로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셨다. 여기에 동반된 확실한 신체적인 불편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34장 13~31절에서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은 할례를 받은 뒤 한 부족 전체를 멸망시켰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그는 자기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및 돈으로 산 모든 남자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했다. 이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 두 번 적혀 있다(창세기 17장 23~27절).

위험은 창세기 21장 9~19절에서 증가한다. 사라는 이스마엘(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자 화가 났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모두 내쫓을 것을 요구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내쫓는 것 때문에 깊이 근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지체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내쫓았다.

창세기 22장 1~14절에서 아브라함의 충성은 커다란 위기를 맞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바라고 기다려 온 약속의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질문이나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하신 산으로 향했다.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시고 숫양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든지 간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7~19절을 보면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으며,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다음 두 가지는 확실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불어나 하늘의 별 내지는 바닷가의 모래만큼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세기 22장 15~17절).

아브라함의 주저 없는 순종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마태복음 22장 34~38절), 우리의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 1서 5장 3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각적이고, 열성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순종은 온 마음 다 해, 온 힘을 다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자 필수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적혀 있으며, 우리는 그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열성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동료로 삼으시기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요한 척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이고, 열성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순종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망설이고, 변명하거나, 단순히 순종하기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각 사람이 순종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잘 지키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다 온전히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책임감은 종종 기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데, 특히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고용 관계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크리스천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서로를 향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순수한 소망에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명확히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운명을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기 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영적인 경제의 이익을 얻기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배우고, 행하고, 나누는 삶의 패턴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서로 책임을 짐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우리의 삶을 아는 것, 행하는 것(순종),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는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의자처럼 바라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다리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쓸모없어지는 세 다리 의자처럼 균형이 맞지 않는 제자도는 쓸모없다. 우리의 지식은 행함 및 나눔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제자도는 완전하지 않으며, 결여된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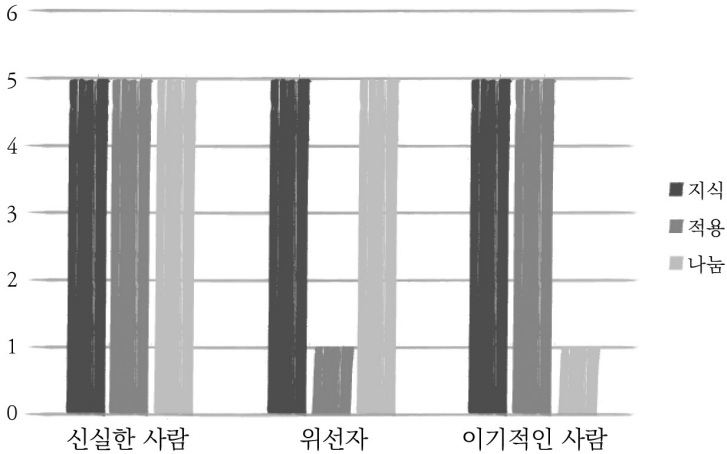
교회는 종종 성경적 지식을 크게 강조하고 그것을 성숙함과 동일하게 여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다. 사실 무가치하다는 말조차도 이를 표현할 수 없다. 불필요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누가복음 12장 47~48절). 행함이 없는 지식은 별을 불러들인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장 17절).

성숙함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얼마나 닮아 있는가이다(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로마서 8장 29절).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또는 그분의 뜻을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구할 때 실수를 한다.

성숙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성숙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음에도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성숙함 대신에 우리는 신실함에 주목해야 한다. 새신자라도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온전히 신실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경제의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은 현명한 투자자이시다. 그분은 신실한 사람에게 투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나온 달란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신실함을 평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위에서 언급한 아는 것, 행하는 것, 나누는 것이라는 의자의 세 다리의 길이를 재보는

것이다. 다음 그래프를 참고해 보라. 단순화하기 위해 그래프에는 동일한 영적 지식을 가진 3명의 사람이 나타나 있다. 그들 모두 동일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정도는 다르다.



그래프의 첫 번째 사람은 신실하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나눈다. 두 번째 사람은 위선자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는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한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는 세 다리 의자가 쓸모없듯이, 이 세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지만 내쉬지 않는다면 10분 안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거나 그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책임감에 더하여,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영적인 호흡의 균형과 일관성을 맞출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삼세번(또는 3/3) 법칙이라 부르는 것이다. 삼세번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되돌아본다 2.) 올려본다 3.) 앞서 본다

각각은 세 다리 의자의 다리에 해당한다. “올려본다”는 지식의 다리에 해당한다. “되돌아본다”와 “앞서 본다”는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는 다리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한 이전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평가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고 나누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본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가정 교회에서 사용한다. 또한 나는 이것을 일일 성경 공부, 훈련 후 관리, 리더십 및 멘토링 모임에서 사용한다. 나는 이용 가능한 시간의 3분의 1을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지난 모임에서 행하고 나누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3분의 2는 성경 또는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통찰력과 감동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올려보는 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서 보며 배운 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앞서 본다”는 우리가 지식을 끊임없이 구하며 배운 것을 언제나 행하고 나누도록 한다.

3/3 법칙은 하나의 습관으로 깊게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나는 성경을 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나누기 원하시는지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내가 배우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서 절대 실천하지 않아서 위선자가 되고 스스로 비판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게 도와주기도 한다.

내가 삼세번 법칙에 대해 설명할 때면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종종 듣는다. (1) 신자들이 이단에 빠질까 봐 우려된다. 공식적인 신학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2) 사람들에게 행함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하고, 이러한 목표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은 행위 기반의 율법주의다. 나는 이 두 우려 사항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이단 신학에 대한 우려는 아주 깊고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 우려에 대해 평가하려면 먼저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리더십이 이단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2018년에 라이프웨이 미니스트리(Lifeway Ministries) 및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는 신학 지식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thestateoftheology.com](http://thestateoftheology.com)에서 자세히 읽어볼 수 있다. 사이트에는 연구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의 일부분은 복음주의 크리스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며, 전도는 매우 중요하고,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없앨 수 있으며,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동의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연구에 따르면 복음주의 크리스천은 최소 10개 이상의 주요 교리에 대해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4분의1 이하의 신자들만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며 창조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3분의1 이하의 신자들만이 성령님은 개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고작 30퍼센트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후에야만 성령님이 새 삶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고작 41퍼센트만이 사람의 천성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 고작 40퍼센트만이 가장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다는 것을 믿는다. 이들은 사소한 주제가 아닌 주요 교리다. 요점은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 사이에 신학의 주요 측면에 대한 이단적인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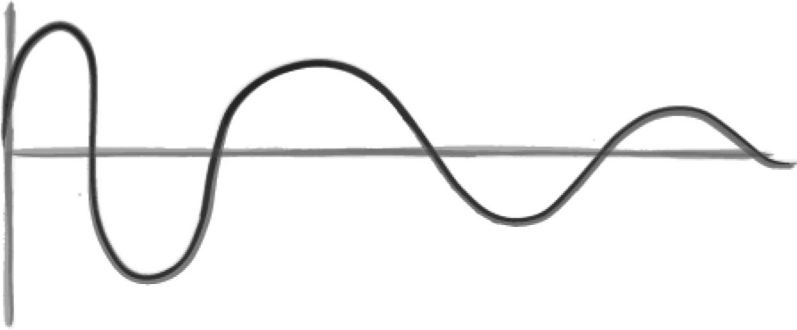
이것이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교회의 리더들이 주 교사로 활동하며 교리를 가르친 시스템의 실질적인 결과다.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 설교단이 좋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신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상이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은 의도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심각하게 이단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환경에서는 예배당에 앉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믿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들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가정할 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훈련받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목사의 자리가 전문적인 성직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활발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도전받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영적인 소비자로 남는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훈련된 리더십이 수동적인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단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3/3 모임은 어떠한가? 이들도 이단적인 신학을 믿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3/3 패턴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새신자들이 있는 모임에 속해 있다면 이단적이거나 미심쩍은 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성도들에게 말하도록 권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교육받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성경에 대해 더욱 풍부히 알게 되고 성경 해석과 적용을 잘 해내게 됨에 따라 믿고 말하는 내용의 정확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실천 내용과 더불어

가능하게 된다. 각 성도는 이 실천 내용을 통해 한 주에 25장 이상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패턴은 아래의 그래프와 유사하다. 이 그래프에서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가로축은 가르침 또는 믿음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곡선은 정확한 이해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3/3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개선되며, 이들은 점점 더 올바른 크리스천의 믿음을 지니게 된다. 수동적인 영적인 소비자로서 예배당에 몇 주가 지나도록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익숙한 교회의 습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의 부의장으로서 글로벌 전략을 위해 섬기고 있었을 때, 내 영역에 있던 부서 중 하나는 글로벌 연구부 (GRD)였다. GRD는 3/3 접근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 운동에 대한 대규모 공식 연구를 10건 정도 진행했었다. 이 운동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이후에 빠르게 성장한 대규모 교회 설립 운동을 경험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숙한 신자들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따라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여러 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에는 다양한 역할과 배경을 가진 개인 및 (가능하다면 다방면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이웃 크리스천, 심지어 그 지역의 비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다.

10여 개에 달하는 이들 운동 속에서 이단의 명백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례는 인도 오리사 지방의 쿠키족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새신자가 시간에 걸쳐 자신의 회심에 대해 증명하기 전까지 세례를 미루는 패턴을 도입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주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다. 확실히

위에서 논의한 미국 북음주의 신자들이 지닌 이단적 믿음에 비하면 세례의 시점에 대한 것은 사소한 문제다. 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단이 절대 생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 10건의 연구에 따라 이단은 흔하거나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고자 한다. 내가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 한 대학의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가을 학기에 믿게 되었다. 그들 모두 완전히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봄 학기 중간에 우리는 이들 젊은 신자들을 위해 어떤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는 레크레이션의 하나로 바이블 트리비아 게임에서 카드를 꺼내 총 700개의 성경에 대한 사소한 질문을 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답변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700개의 질문 중 698개 (또는 99.7퍼센트)의 질문에 옳은 답을 했다.

나는 미국의 신자들과 바이블 트리비아를 여러 번 진행해 본 사람으로서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도 이것은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장을 읽을 때 이 사례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 결과는 매일 성경을 많이 읽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을 함께 연구한 결과다. 요점은 이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을 빠르게 얻게 되었다. 미국의 교회에서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새신자에 대해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교육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스스로 발견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3/3 접근법에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반복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설명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

자전거를 한 번도 타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쇼파에 앉아서 21일 동안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를 시청해 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의 학생은 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수들을 모델로 흉내 낼 수 있다. 레이스가 끝나고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전거를 타 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생각보다 잘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목사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시청하는 교회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배울 것을 기대하는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자전거에 올라타서,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방법이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습해야 한다(아마 처음에는 잘 안될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가르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연습을 통해서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작은 모임으로 나누는 후 그 모임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제자 삼는 과정은 제자가 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의자의 세 다리에 모두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마태복음 28장 18~20절).

행하고 나누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3/3 패턴에 대한 두 번째로 흔한 우려는 “올법주의!”다. 하지만 올법주의는 A라는 사람이 다른 B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할 때 일어난다(바리새인들이 안식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비판했듯이 말이다). 3/3 모임에서 이러한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3/3 모임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계획에 대해 모임 구성원들과 나눈다.

다음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 B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B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는지, 들은 것을 영적 공동체와 나눴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행동의 외부적인 기준이 아닌 주님 앞에 각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모임은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기도

주님, 주님은 무엇보다도 열성적이고, 즉각적이고, 대가가 따르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게 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저를 지체하게 하는 것들을 뿌리뽑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알고, 행하고, 나누는 것에 가장 약한가? 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2. 나는 새신자에게 무엇을 믿을지 전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배우도록 훈련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전자의 행동보다 후자의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3. 어떻게 하면 3/3 패턴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4.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5.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5 책임지는 삶

---

주님을 알고 따르는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크리스천의 삶은 다이어트 또는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같다. 햄버거 한 개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지는 않는다. 내 몸의 균형이나 그렇지 않은 것은 수 천개의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또는 성장 부족)은 배우고, 행하고, 나누는 것(또는 하지 않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습관은 삶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테오프락시 삶을 짓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 습관들을 나누고자 한다. 유익한 두 가지 습관은 성경을 매일 읽고, 일기에 기록하며, 한 주에 한 번씩 책임 파트너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면 4~5장을 읽는다. 이것은 한 주에 최소 25장에 달하는 양이다. 나는 매일 읽는 분량 중에서 주님이 특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1~4개 정도의 구절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읽고 통찰한 것은 주로 SOAPS 형식으로 기록한다.

Scripture — 성경(구절을 적는다)

Observation — 관찰(주요 생각을 적거나 구절을 다른 말로 사용해 적는다)

Application — 적용(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나, 원하시는 됴됨이나, 변하기 원하시는 것을 결단한다)

Prayer — 기도(적용에 관한 기도를 적는다)

Share — 나눔(내 생각을 나눌 사람을 적는다)

또한 나는 정기적으로(보통 한 주에 한 번씩 전화 또는 영상 통화로) 책임 파트너와 대화한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누구와 나누었는지,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책임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나눈다.

책임에 대한 질문은 독실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폭넓고 지속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들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 보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영역에 대해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또한 어떤 문제가 습관이 되거나 깊게 뿌리내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해 준다.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과 내 책임 파트너에게 문제에 대해 고백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야고보서 5장 16절).

책임 파트너는 여러분과 같은 성별이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서로간에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매주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지 함께 정할 수 있다. 모임 시간에는 지난 번 모임 후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질문들을 검토한다.

내가 사용하는 질문들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의 유명한 책임 모임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내 좋은 친구인 닐 콜 또한 그의 LTG(Life Transformation Groups)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내가 사용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난주 성경 읽기에서 얻은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2. 지난주 누구와 생각을 나눴으며, 그 생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3.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보았는가?
4. 이번 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 간증했는가?
5. 성적으로 유혹하는 매체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성적인 생각을 즐겼는가?
6.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는가?
7. 무엇인가 탐냈었는가?
8. 말로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주었는가?
9. 말이나 행동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10. 중독성 있는(또는 게으르거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빠졌는가?
11. 옷, 친구, 일 또는 소유의 노예가 되었는가?
12.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13. 어떤 걱정거리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불평하거나 투덜댔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했는가?
14. 중요한 관계에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졌는가?
15. 생각, 말 또는 행동에서 어떤 유혹을 마주쳤으며 어떻게 대응했는가?
16. 다른 사람, 특히 신자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기회를 가졌는가?
17. 기도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들었는가?
18. 한 주 동안 성경 읽기를 완료했는가?

가끔 문해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일 및 주간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문 목록을 만드는 대신 나는 몇몇 성경 구절(갈라디아서 5장 19~23절, 요한1서 2장15~16절, 고린도전서 13장 4~7절,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등)을 암기하고 영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한 주에 25장 이상을 읽는 대신 그들은 스마트폰 또는 오디오 성경을 통해 성경을 듣는다.

이전 장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등 실제적인 해석학을 배우는 데 필수적이다. 주님의 모든 제자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 모임에서 3/3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짧은 성경 구절을 깊게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8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3/3 접근법을 사용하면 보통 약 3시간에 걸쳐 25장 정도를 다룬다. 한 장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짧은 구절을 깊게 파고든다고 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는 없다. 장르의 영향, 초기 독자에 대한 단서, 문맥의 영향, 구절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기술 등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측면을 배울 수 있지만 스스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법을 배우려면 보다 긴 구절을 소화해야 한다. 나는 주요한 생각에 대해 적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특히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오직 주님에게서만이 이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성경에 파묻히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든다.

분명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SOAPS 접근법이 유용한 이유다. 이 접근법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일정 수준의 중심을 유지하고 적용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매일 짧지만 “더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일기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쓰는 행동을 통해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때때로 일기를 검토하고 이루지 못한 결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완벽하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일기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주님이 감동을 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 싶다면 일기가 필요하다.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면 그것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문제와 일반적인 원칙은 책임 모임에서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일기는 3/3 모임 및 SOAPS 읽기를 통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구체적인 적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3/3 과정과 SOAPS 일기 기록을 통해 진행하는 적용은 원칙 기반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또렷한 소망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더 신경 써야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밤 아내의 설거지를 도울 거야.”와 같은 구체적인 다짐이 더 강력하다.

처음에는, 특히 크리스천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설교와 수업에서 원칙 기반의 적용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목사와 교사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적용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이러한 일반 원칙 또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지시다. 이 단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행함에 대해 깨닫기 위해 필수적이다.

## 기도

주님, 제가 작은 것들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우고, 행하고, 나누고, 반복하는 선순환을 제 삶에서 만들어가는 습관을 기르게 해 주세요. 제 하루,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하루, 한 주간의 내 습관은 신실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이 장의 어떤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2.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3.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6 기도 속에서 성장하기

---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향해 성장해야 한다.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분과 대화할수록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특성이 더욱 많이 드러난다. 하나님과의 좋은 대화에는 많이 듣는 것이 포함된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기본이다. 이번 장에서 나는 기도하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도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기도하며 걷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 내가 아는 한 이 방법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마태복음 6장 10절)에 순종하도록 도와준다.

기도하며 걷기는 보통 걸으면서 보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며 걷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와 같이 기도하며 걷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 사이에 세 방향으로 흐르는 대화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방법에는 2가지 이점이 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이외에도,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종종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 위에서 세워지며, 혼자 기도했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며 걷기를 하는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결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1. 관찰
2. 계시
3. 조사
4. 성경 구절에 기반한 기도

관찰은 여러분이 걸으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웃집 마당에서 세발자전거를 본다면 그 가정에 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 집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또는 사람에게 필요한 차량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관찰하는 것과 명백히 관련 없는 것이 그것이다. 가끔 이것은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주제나 생각이다.

또한 우리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주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실업, 청소년 임신, 약물 남용에 대한 문제를 읽어 봤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네를 걸어갈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조사에는 사전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

성경 구절에 기반하여 기도하는 것은 미리 계획할 수도 있고, 기도하며 걷는 중에 특정 구절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상황 간의 격차를 찾는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는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영역을 발견하게 되며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며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된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걸으며 보는 것들에 대해 주님께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화와 기도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 준다.

연습을 통해 이것은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며 살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테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는 명령의 의미다. 기도하며 걷기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 테오프락시 삶을 살려면 이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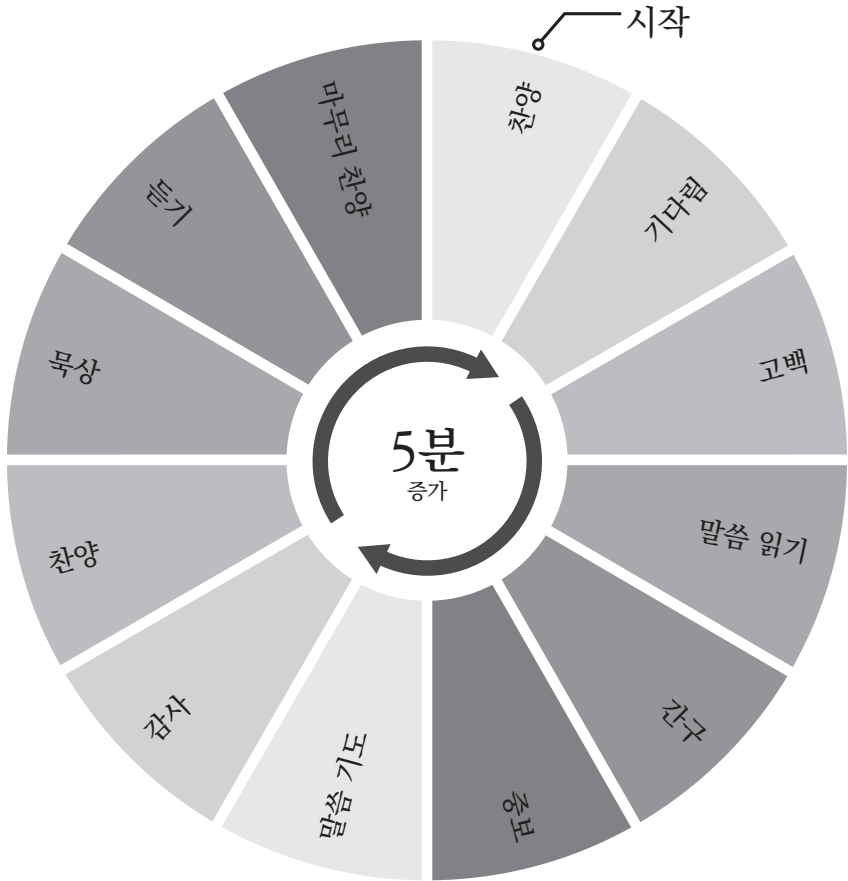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공기, 물,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관점을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고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끊임없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에서 꾸준히 길러야 할 행동 양식인 것이다.

가치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고 경고하신다(마태복음 6장 5~절).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소통이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세상의 왕 앞에서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 아니다.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든지 그 왕의 반응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 말,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전심을 다 해 알기 원한다.

종종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느낌일 때 차라리 조용히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가끔 이러한 느낌은 질문을 할 때라는 신호인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혜택을 받는다. 성령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이다(로마서 8장 26절).

종종 너무나도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기도에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다. 쉽게 집중을 잃어버린다. 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더 언급하고 싶다. ‘기도 바퀴’라 불리는 이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집(Every Home for Christ)의 덕 이스트맨이 개발했다. (허가에 따라 사용됨. 덕 이스트맨, *세상을 바꾸는 시간*[*The Hour that Changes the World*], Grand Rapids, MI: Chosen Books, 2002). 이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을 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12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섹션은 (아래에 나와 있듯이) 다른 종류의 기도를 위한 것이다. 각 섹션을 5분의 기도를 위한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12개의 섹션을 한테 합치면 한 시간의 기도를 위한 유용한 가이드가 된다.

기도 바퀴를 사용해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찬양: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도 시간을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한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특별한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한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찬양한다. (시편 34편 1절)
2.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낸다. 주님께 여러분을 위해 생각할 시간을 드린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시간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시편 27편 14절)
3. 고백: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 주시라고 성령님께 구한다. 잘못된 태도와 회개의 기도로 고백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알려 주시라고 주님께 구한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남은 시간 동안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고 요한1서 1장 9절을 마음에 묵상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시편 51편 1~19절)

4.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기: 시편, 예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있는 기도를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용어 색인을 확인한다. (시편 119편 97절)
5. 간구: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요청, 기도 목록, 기도 카드를 통한 기도이거나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적 관심사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6.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다. 여러분이 요청받은 기도 제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로마서 15장 30~33절)
7. 말씀 기도: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기도한다. 시편 119편의 특정 부분은 기도를 위한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편 119편 38~46절)
8. 감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 교회, 가족과 친척, 직장, 지역사회를 위해 주신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9. 찬양: 찬송가를 펼치고 기도 찬양, 경배의 찬양, 영혼 구원이나 전도에 관한 찬양을 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편 59편 17절)
10.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주님께 구한다. 종지와 펜을 손에 닿는 곳에 두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주시는 감동에 대해 적을 준비를 한다. (시편 63편)
11. 듣기: 여러분이 말씀에서 읽은 것, 기도한 것, 주님께 감사한 것, 주님께 찬양한 것을 통합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켜본다. (사무엘상 3장 9~10절)
12. 찬양으로 마무리: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에 대해 그분을 찬양한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기도에 대해 그분을 찬양한다. (시편 145편 1~13절)

특히 미국인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서 기도에 대한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 기도 바뀌는 많은 사람에게 기도 능력을 증진시킬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 특히, 주님을 따르는 데 중요한 요소인 더 많이 듣기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하도록 돕는다.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추가적인 실천 사항은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꾸로된 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을 알고 있다. 내 인생에서는 세 번 사람들이 내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심한 잘못을 한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상황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를 안겨 주는 이러한 많은 사건은 영원의 관점에서만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이 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훈련으로 삼고 있다. 나는 그날의 SOAPS 일기의 “적용” 항목과 관련된 방식으로 기도한다. (여담이지만 나는 내 일일 기도 목록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누가복음 21장 34~36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일반적인 적용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지 못하게 하거나,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고난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나는 어떤 특정한 적용이 각 개인과 관련이 있고 유용한지 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

종종 그날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 세 명의 “원수”에 대해 매일 기도하는 것은 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생각을 준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내 자신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선, 부패, 동기, 유혹에 대한 여러 측면을 깨닫는다. 나는 이 단순한 습관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언제나 놀라곤 한다. 나는 이 습관으로 인해 큰 은혜를 받는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돕는다.

기도는 음성 듣는 것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묶는다. 기도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9~13절에 나온 주기도문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울 서신에 나온 많은 기도 지침들도 복수형으로 적혀 있다.

사랑, 음성을 듣는 것, 하나됨에 대해 요한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가 요한1서 5장 14~15절의 기도에 대한 유명한 약속을 복수형으로 적은 것은 놀랍지 않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에서 그 예시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개인 및 공동체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알려지는 것과 그분의 나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모세(민수기 14장 11~19절), 다니엘(다니엘 9장 1~19절) 및 다른 신실한 성인들은 기도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주요 방향으로 삼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주요한 고려 사항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다. 요한은 위에 언급된 요한1서 5장 14~15절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분께 구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잘 알고 그분의 뜻, 인격, 방법을 더 잘 이해할수록 기도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도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 기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기도의 부족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신경 쓰시고, 답을 주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관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기도를 알려 주세요.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기도하며 걷기, 기도 바퀴,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2.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3.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17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

---

우리는 제자 만드는 제자 양성 사역을 의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훈련 사이클을 활용해야 한다.

---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함축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시로 끝이 나며, 이는 지상 명령(마태복음 28장 18~20절)으로 알려져 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상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구, 반드시 해야 하는 문구는 "제자로 삼아"이다. 다른 문구(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분사로 적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 서술어 중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순종하게] 하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양성한다. 제자 삼기 과정의 결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여야 한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명령 중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하면, 순종하는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제자 삼으라는 그분의 명령을 포함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 원칙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영적인 세대를 거쳐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MAWL 훈련 사이클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유용한 패턴이다. MAWL은 훈련 사이클의 4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M — 모델(Model), A — 도움(Assist), W — 관찰(Watch), L — 떠남(Leave).

예를 들어 살펴보자. 누군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는 MAWL의 4가지 측면이 적용된다.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전에 누군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봐야 한다. 모델의 역할은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타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 모델이 되어주는 단계에서 교육자는 기술을 시현하고 훈련생은 지켜본다.

“도움” 단계는 약간 더 길다. 여기서 훈련생은 자전거에 앉은 사람이고, 훈련자는 도움을 위해 한 손은 핸들에, 한 손은 안장에 두고 자전거 옆을 따라 걷는 사람일 것이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으며 훈련생에게 자전거 타는 느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준다. 의존이라는 패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도움을 너무 오래 주면 안 된다.

“관찰” 단계는 더 길다. 이제 훈련자가 자전거 타기의 추가적인 기술과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훈련생은 독립심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기술에는 자전거에 오르기,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기, 장애물과 커브 길에서 방향 변경하기, 브레이크 밟기, 오르막 및 내리막길 타기,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때와 장소, 교통 법규 준수와 교통 신호 따르기 등이 포함된다.

훈련생이 모든 기초를 습득하게 되면, 훈련자는 떠날 수 있다. 이제 새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독립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훈련 사이클의 네 단계를 발전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의 사람들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배운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더욱 다듬어야 한다. 4단계는 모든 기초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물론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지 않다. 발달 단계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유전자 접합에 대해서는 1단계 수준이고, 요들은 2단계 수준에 있으며, 하모니카 연주는 3단계



수준에 있고, 스쿠버 다이빙은 4단계 수준에 있다. 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른 다이버를 교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기술에 대해 자신보다 최소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2단계 수준에 도달하는 즉시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가르치는 것은 그 기술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훈련 사이클에 따라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과정에는 멘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명확한 방향 지시가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명확한 방향 지시에 더해 격려가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격려가 필요하지만, 방향 지시는 덜 필요하다. 특히 향후 성장 과정과 주제에 대해 솔선해서 나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유대가 필요하다.

각 역할에 요구되는 시간은 역할마다 다르다.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아주 짧아야 하며, 돕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짧아야 하고, 관찰은 꽤나 길어야 한다. 첫 두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대면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찰 과정은 종종 멀리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전자 통신 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다. 사실 관찰 과정은 보다 즉석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연관된 개념 및 기술에 대해 누군가를 멘토링하고 있는 경우, 나는 훈련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모든 기술에 대해 훈련생이 3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각 기술에 대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준다. 나는 이를 통해 훈련생이 그동안 배운 과정에 대해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진행 상황에 대해 서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내가 제자 양성에 사용하는 다음 훈련 체크리스트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왼쪽 열에 있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기 바란다. 이 주제들은 단순히 예시일 뿐이며 여러분의 접근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훈련 체크리스트**

	모델 정보 부족 새로운 정보를 교육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도움 기술 부족 기초를 다질 때까지 함께 있어 준다.	관찰 능숙 능숙함을 유지하는지 관찰한다.	떠남 숙달 훈련생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 교육시킨다.
<b>멘토의 역할</b>				
	멘토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준다.	멘토는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준다.	멘토는 도움과 격려를 준다.	멘토는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b>계획 방법</b>				
훈련 도구	멘토의 결정	멘토/멘티 논의 후 멘토가 결정	멘토/멘티 논의 후 멘티가 결정	멘티의 결정
새끼 오리 제자도				
자신의 이야기 말하기[간증]				
관계의 청지기 정신 — 100명의목록				
걸음 보조				
비연속 사역				
3/3모임 형식				
단순한 교회 — 하나님/이웃 사랑, 제자 삼기				
두 교회의 일원 되기				
훈련 사이클				
책임 모임				
자급자족: — 매일 말씀 읽기[순종하기] — 기도 — 말하고 듣기[기도 사이클] — 그리스도 몸의 삶 — 동료애 [서로 간] — 박해와 고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눈 돌리기				
평안을 받을 사람 구하기[마 10장, 눅 10장]				
기도하며 걷기				
교회 되기: — 동료애[함께 식사하기, 서로 간] — 찬양 및 경배 — 성경[순종, 훈련] —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나누기] — 세례				

기술과 능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도표가 전체 능력이 온전히 전수되도록 해 준다. 또한 기술, 능력, 다음 세대의 태도에 일관성을 보장해 준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 명의 사람을 멘토링하는 경우 각 사람에 대해 가르친 것과 가르치지 않은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모든 관련 기술에서 4단계에 도달하면 멘토링 관계는 끝나고 동료 대 동료의 관계가 시작된다. 언제나 훈련 사이클 자체를 익히는 것은 4 단계에 도달한 사람의 거의 마지막 단계다. “졸업”하기 위해서 4세대에 걸쳐 재양성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나서야 훈련자로서 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1세대가 2세대를 관찰한 후에는 적절하게 1세대를 떠나야 한다. 그러는 동안 2세대는 3세대를 돕고 3세대는 4세대의 모델이 된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기술과 개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못한다. 따라서 4세대에 걸쳐 효과적으로 훈련을 전수해야 한다.

트레이닝 사이클을 도입하는 것은 제자 삼기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전수가 필요한 모든 훈련 또는 교육에서 중요하다. 이를 잘 행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멘토링하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과정을 열심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적용하고 전수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소수에게 많은 투자를 하여 그 사람들 또한 소수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의 열매는 몇 세대에 걸쳐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훈련 사이클 및 내가 제시하는 다른 도구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 줌(Zúme) 온라인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줌은 그리스어로 누룩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평범한 자원을 사용하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줌은 제자와 단순한 교회를 어떻게 늘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초 훈련 과정이다. 이 과정은 [zumeproject.com](http://zumeproject.com)에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40개의 언어로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줌 과정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안내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해 줄 코치와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패턴을 시작하고 난다면 24:14([2414now.net](http://2414now.net))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4:14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름을 가져온 연합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14의 실천가들은 2025년 말까지 전 세계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퍼뜨리는 제자 삼기 방식이 도입되도록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있다. 24:14 네트워크는 제자 삼기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발전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대해 그 명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자 삼기의 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블로그 시리즈를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시리즈는 obeygc2.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 중 하나다. 이 시리즈는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룬다.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는 실천 방식이다.

##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더 많은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한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 주세요. 제가 그들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되,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말아 주세요. 저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실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훈련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저에게 알려 주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 질문

다음 질문을 읽고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행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여쭙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일기를 다시 읽어 보세요. 지난 결심 중에 아직 행하지 않은 결심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완료일을 잡으세요.

1. 나는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누구부터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훈련 사이클의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2.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3.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구와(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 나누기 원하시는가?

주님께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배운 것을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 보충 자료

## 웹사이트

 [zumeproject.com](http://zumeproject.com) — 줌(Zúme)은 제자를 양성하고 단순한 교회를 확장해 나가도록 무료로 진행하는 온라인 기초 훈련 과정이다. 2시간 분량의 강의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으로 설계되었으며, 동영상 기반이다. 코칭도 제공한다. 여러 언어가 지원된다. 웹사이트는 준비 중이다: [zume.training](http://zume.training) 및 [zume.vision](http://zume.vision).



[metacamp.org](http://metacamp.org) — 앨라배마주 다드빌에 있는 우리의 선교 및 제자 삼기 훈련 센터 웹사이트다. 내 블로그도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괜찮은 기회를 찾거나 여러분의 지역에서 훈련 행사를 요청하려면 훈련 일정을 확인하기 바란다.



[2414now.net](http://2414now.net)—2025년 말까지 전 세계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증식하는 제자 양성 방법을 사용하는 실천가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연합이다.

[multiplyingdisciples.learnnn.com](http://multiplyingdisciples.learnnn.com) — 제자 삼기 훈련에 관한 추가적인 주제들. 동영상의 질은 떨어지지만, 내용은 유용하다.

[obeygc2.com](http://obeygc2.com)—내 개인 웹사이트. 이 책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거나 다른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 전자책 및 오디오북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다운로드

관계에 관한 영상 4편([https://www.youtube.com/watch?v=dvIvArV\\_Zf0](https://www.youtube.com/watch?v=dvIvArV_Zf0)) 창세 이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될 때까지의 인류 역사에 대해 다루는 영상이며 지원 프로그램으로 줌을 홍보한다.

이 책의 몇몇 주제에 대한 저자의 간증 (<https://zume.life/testimony-1/>).

축복을 담은 작은 책(Blessing Booklet) (<https://zume.life/wp-content/uploads/2019/02/Blessing-booklet.pdf>) — 어린이들이 테오프락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했다. (31.9 MB)

사진으로 보는 시편(사진으로 보는 시편) (<https://zume.life/wp-content/uploads/2019/02/Scenic-Psalms-2-page-view.pdf>)—시편의 몇몇 구절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24.3 MB) 이 자료를 제대로 보려면 Adobe Reader에서 “보기”, “페이지 표시”, “두 페이지 보기”를 차례로 선택한다. 순수하게 즐거움과 격려를 위한 자료다.

더 많은 제자(More Disciples)(아마존에서 찾을 수 있음)는 이 목록에 있는 자료 중 유일하게 무료가 아니다. 더그 루카스가 쓴 이 책은 본 책의 3부에서 논의한 도구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관련 웹사이트인 ([moredisciples.com](http://moredisciples.com)) 또한 참고하기 바란다. 모든 수익은 줌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다.

## 저자 소개

커티스 서전트 박사(Dr. Curtis Sergeant)는 국제선교이사회(IMB)에서 중국의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의 개척자로 섬겼다. 사역을 통해 교회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역으로 옮겼다. 커티스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국가, 교파, 기관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이들은 한데 모여 수백만여 개에 달하는 가정 교회를 설립한 운동을 촉발했다.

몇 년 후 그는 훈련자 및 컨설턴트로서 중국의 주요 가정 교회 네트워크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IMB의 글로벌 전략 부문 부의장으로 섬겼다. 여기서 그는 훈련자를 겸임하며 연구 부서를 감독했다.

그다음에 커티스는 새들백 교회로 가서 교회 개척 국장으로 섬겼다. 그는 새들백 교회에 있는 동안 선교를 위한 온라인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인도에서 대규모의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인도했다. 또한 이 기간에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커티스는 3년간 e3 파트너즈의 국제 부의장으로 섬겼다.

커티스는 현재 앨라배마주 다드빌에 있는 제자 삼기 및 선교 훈련 센터인 메타캠프(MetaCamp)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줌 및 24:14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다. 커티스와 그의 아내 데비에게는 결혼한 두 성인 자녀 나단과 메간이 있다.



# 부록 1:

##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부록에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동안 생각해낸 기도를 담았다. 이 기도는 테오프락시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 여러분이 한 달에 걸쳐 기도할 수 있도록 30개의 일일 기도로 만들었다.

기도 모음의 제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기도 모음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그 이유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만이 기도의 유일한 주제는 아니다. 거룩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 심지어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 기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온전히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이러한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 부록의 영어 제목에 사용한 “*orisons*”이라는 단어는 “*prayers*”와 동일한 의미로 “기도”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어이지만, 스타일을 위해 사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따라서 기도는 친밀한 경험이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와 끊임없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에 소홀해지거나 심지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나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orisons*”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에 제시된 기도 또한 내 일상적인 기도보다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경이와 경배의 감각을 기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친밀하시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도 하다. 이 기도들은 그분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기억하도록 한다.

나는 내 마음에서 우리나라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왕과 그분의 나라에 더 가깝게 하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키우기 원한다. 또한 여러분이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기회를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다음 여정에 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크리스천의 결심을 마음에 새기는 데 이 기도들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시작점으로 이 기도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1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어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 모든 소망, 목적, 영광으로 여기며,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과 인도자 되어 주시고, 제가 닳아갈 모델이자 저를 빛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 반석이자 피난처이십니다. 저에게 길을 알려 주시는 예언자이시자, 저를 위해 증보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저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겪을 핍박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주님과 같이 되는 특권과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잊거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앞으로 인도하실 때 뒤로 물러가거나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과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 손짓 하나에도 온전한 반응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악한 세상과 그 영향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유희와 핍박, 악,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 속에서는 그저 나그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끊임없이 나타내며,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르는 충직한 대사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주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고 제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초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회개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 몸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도록 제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제 마음의 슬픔과 통환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 스스로 정한 기준에서조차 진실되지 못한 것과,  
유혹앞에서 스스로를 속인 것,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악한 것을 선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하라고 하셨을 때 침묵했던 것과 침묵하라고 하셨을 때 말한 것,  
기다리라고하셨을 때 행동한 것과 행하라고 하셨을 때 망설인 것,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잘못에 안일하게 반응한 것과 영향을 미치는 잘못에 과민하게 반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동정심이 마음에 부족하여 짓밟히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제 편안함과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제 교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지와 스스로 깨우침을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기준을 제 스스로에게는 지키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의 장점과 제 속의 악을 보지 못한 것,  
제 이웃의 잘못에 대한 엄격함과 제 잘못에 대한 관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작은 일에 부르시고 제 형제를 큰 일에 부르신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큰 기회를 저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제2일

거룩하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은 계속해서 교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거룩과 권능, 사랑,

선하심을 합당하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움, 완벽함이 아닌 다른 가련한 피조물과 제 자신을 비교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소망과 목적, 기준, 자기 인식, 일상 속에서 실수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몸, 정신, 영혼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속에 기쁨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 드리는 시련이 저를 피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 7대 죄악의 “영적인” 형태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님, 주님의 영광을 통해 저에게 큰 고난을 주던 유혹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일한 유혹의 “영적인” 형태에 아직도 취약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혹이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이러한 죄를 피하려면 스스로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교만:** 주님, 영적인 교만이 육신의 교만보다 더 나쁜 이유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탈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닌 저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덕이나 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영적인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모든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주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저는 단순히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탐욕:** 주님, 저를 영적인 탐욕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일신적인 것들에 대한 탐욕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욕심내게 하듯이, 영적인 탐욕은 주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저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욕심내게 유혹합니다. 사역에 대해 더 많이 욕심내고,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은사에 욕심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에 대해 욕심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와 영향력을 현명하게 지켜서 제 스스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역의 깊이에 신경 쓰고, 사역의 넓이는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욕망:** 주님, 저를 영적인 욕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제가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인정받거나 영광받기 원하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이나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 주님, 영적인 질투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진 평판, 사역에서의 영향력, 하나님과의 관계 등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다른 좋은 것들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으신 그대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저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주님, 저를 영적인 탐욕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제 필요보다 더 쓰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보다 받으려 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 축복받으려 하는 영적인 이기심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분노:** 주님, 저를 영적인 분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불만 또는 짜증, 다른 사람에 대해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용서, 저에 대한 인내, 저의 미성숙한 동기에 대한 관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 기회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저를 향한 주님의 의도에 닿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 주님, 저를 영적인 나태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넘치도록 주신 기회, 영적인 은사, 영향력, 관계, 자원, 지혜 및 다른 복들을 잘 지키는 좋은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편리함, 기쁨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지에 대해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적인” 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부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 제3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신 대로 살고, 보신 대로 보고, 느끼신 대로 느끼고, 섬기신 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죄의 유혹과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가 나태와 교만이라는 이기적인 욕망과의 싸움에서 매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 재물, 명예 등 제 삶 가운데 주신 많은 복들에 대해 지극히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지키사 이 복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 순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증거함으로써 제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채워 주시어 저를 단물이 나오는 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깨지더라도 절대 쓴 물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 삶의 항해

주님, 제 삶의 항해를 떠납니다. 저의 선장이 되어 주시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평선 너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제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강한 폭풍에 휘말리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이러한 시련을 준비해 두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고요한 바다를 지나든, 험한 바다를 지나든 제 모든 여정 속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며, 믿음은 저의 돛이고, 소망은 저의 닻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 제4일

주님, 주님을 떠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제 눈이 멀었습니다. 제 빛과 시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지합니다. 제 지혜와 지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제 길과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죽었습니다. 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와 악, 자아에 대해서 죽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제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나운 폭풍이 저를 덮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상황과 주변 환경이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상황, 나아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손짓에도 즉각 반응하여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큰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보다 온전히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저를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여정

주님, 주님은 제 여정을 인도하시는 길이자 목적지이시며, 제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상황을 만드시고 시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여정길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방황하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어 다른 사람을 위한 인도자로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5일

주님, 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피로하고,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한 체념이 아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제 상황을 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즐겁고 쉬운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길로 빠져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목적을 인도하여 주시어 선과 악 사이의 선택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의 선택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존재가 되고, 그에 따른 말을 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기쁨과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날 때,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보다 제 소망을 구할 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이나 제 힘을 널리 알리는 데서 오는 만족, 충만함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완벽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적이었음에도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며 아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저를 친구이자 자녀로 여겨



주십니다. 저를 기르시고 빚어 주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울퉁불퉁하든지 곧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는 일에만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 향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놀라운 기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향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봄에 만발한 섬세하고, 황홀하며, 달콤한 꽃향기와 우거진 관목 속에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을 가장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이 향기를 “공기에 취한다”고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영은 저희 존재에게 이러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향기를 널리 퍼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황홀한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6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제 마음과 상상력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작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제국, 개인의 흥망성쇠는 물론 단세포 생물의 탄생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고, 인지하고,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무한한 능력과 지식과 무소부재는 제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존재인 사람이 창조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고, 재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랑의 넓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과 감정으로는 이러한 희생과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 아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에 보답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음악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신 주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음악은 저희를 감동시키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율은 영혼을 감동시키고, 화음은 저희를 흥겹게 하며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의 선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신 새 노래로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휘자이십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에 주신 음악을 삶에서 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악이 하나님께 즐거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우주라는 이름의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제7일

주님, 제 삶의 생각과 소망, 감정, 말, 행동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섬기며,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지 않는 제 마음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제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완벽히 들어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제 유일한 두려움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만물이 구원받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제 유일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일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리고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지혜, 부와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

섬김, 은혜로부터 제 모든 기쁨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 지혜이자, 보물이시며, 능력이십니다.

### 농사

주님, 주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산에 살게 하사 그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소명을 농사를 통해 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농사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 순수한 삶의 원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수확, 포도나무, 나무를 볼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데 열정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가축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이 가축들에게서 능력과 목적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끈기 있게 일하는 농부를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복 주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치치기해 주시옵소서.

### 제8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제 모든 하루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순간과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어느 곳으로 저를 이끄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 목소리가 되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통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완벽하지 않은 통치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통치 체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저희를 축복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힘을 모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배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단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법, 더 나은 사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이루는 데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쓰인 법을 초월하여 살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명확히 내려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왕이십니다.

### 제9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선물과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저의 사소한 소망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소망을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형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제 믿음을 미련함으로, 제 온유함을 약함으로, 제 열정을 광기로, 제 소망을 망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을 미친 짓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기뻐하기 원합니다. 제가 영원한 복을 구할 때 하늘나라의 소망과 힘으로 저를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나 하나님만 위해 사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며 모든 피조물은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작은 흙덩이일 뿐입니다.

저에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걸작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고운 진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빚기 위해 저를 눌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빚으시는 걸작품이 되기 위해 뜨거운 불길에 던져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시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10일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저에게 생명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과 은혜를 통해 제 믿음을 시험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 순간에 기쁘든 기쁘지 않은 상관없이 순전한 감사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순종을 가르치시고, 저를 완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소망을 키워 주시고 기대를 높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위해 저를 빚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소망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경험할 변명과 역경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 소통하시는 분/계시하시는 분

주님, 저와 소통하시고 모든 면에서 저와 관계를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놀라우며, 창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역사, 사람, (살아있고 글로 쓰여진) 말씀, 저희 안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뜻, 목적뿐만 아니라 저희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의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능력을 주시고, 음성 들은 것을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변화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뜻에 부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전하는 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제11일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하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인내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겸손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다림줄이시며,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패턴이시고, 궁극적인 현실이십니다. 제가 진리를 가까이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곧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과 이해를 주시옵소서. 제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성령을 통해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옆의 다른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저에게 알려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제12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죄를 숨기거나 세상의 태도 또는 소망에 탐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뻐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지위, 소망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임재를 구하는 순수하고 경건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벽한 자유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두려움, 부끄러움을 제 안에서 물리쳐 주시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말씀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 능력

모든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향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비와 은혜, 정의, 친절, 양선, 사랑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하고 피로할 때, 소망을 잃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고난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면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13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취 주시옵소서. 저를 향해 예비하신 길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안에 머물지 않으면 제 마음이 약해져 스스로 속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입술과 삶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삶이라는 보다 위대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사람들이 저의 모범을 보고 더 큰 뜻을 향해 성실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나 권세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제 확고한 신념을 보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 주시어 섬김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제 기쁨이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저를 통해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들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걷고, 보신 대로 보고, 들으신 대로 듣고,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이 매일 제 안에 깃들게 하여 주사 다른 사람을 제 자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희생으로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권위

주님,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저희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견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 크고 작은 사건들로 고통과 슬픔, 고난, 공허함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길을 밝히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담대한 인내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와 기쁨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순종하기 원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목적에 고개 숙이기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 제14일

주님, 더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알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어 제 안에서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 세상의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약하고 넘어질 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예비하신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혜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빠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에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경건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과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한 것을 깨닫고 나아가든 넘어지든 겸손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짧고,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고, 책임은 막중하고, 영원이 가깝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제 심장 박동이 되어 주시고, 제 생각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제 안에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신실함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위대함을 나타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정점이시며,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을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제 삶을 쏟는 것은 낭비이며 결국엔 실망할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 제15일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행하든, 행하지 않든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여정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권하여

동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상황에서 지혜와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고난 속에 있든지, 평안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삶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끊임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섬기는 일에 뛰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지만, 내 안에 있고,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주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직접 저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지만, 직접 저희에게 친밀히 다가오셨습니다.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저희 안에 들어오시어 거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놀랍고 또 놀라우며, 경이롭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 감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 지식을 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설계와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피조물에 적합한 삶을 저를 통해 증거하여 주시고, 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뜻에 더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의 목적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새로워진 삶을 살므로써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16일

주님, 성령을 통해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호흡이 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제 찬양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 발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으로 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정의로운 자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흠도, 실패도 없는 완전한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비에 이보다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에 기뻐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을 저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명확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상적인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도록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제가 정의로우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진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사랑을 통해 삶과 사랑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방해 속에서 이 삶과 사랑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 제17일

주님,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교회뿐만 아니라 기쁘고, 고통스럽고, 슬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에서 깊은 사랑의 표시로 징계와 훈육을 주십니다. 제가 이 징계와 훈육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태양을 볼 때 태양보다 밝은 의의 태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를 볼 때 제 영혼에 물 주시는 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강물을 보고 영원한 나라에 흐르는 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의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제 영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히 견고하며 형언할 수 없이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다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와 권고에 보다 끊임없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원한 하나됨과 소통하는 성품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완전한 이타심과 이렇게 강력한 정체성이 어떻게 합하여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상호보완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명확하면서도 다면적인 정체성을 지니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자, 목적지이시며, 창조주로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만물이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아버지를 섬기시며, 아버지는 만물을 아들의 주권 아래에 놓으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저희가 갈망하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저희를 빚어가십니다.

놀라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삼위일체와 저희를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삼위일체의 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성품으로서 서로 역사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속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나됨이 삼위일체의 위대하심을 강력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심으로 인해 모든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십니다.

### 제18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제 단점과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이기적인 동기가 가장 고결한 노력까지 오염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아갈수록, 제 약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아갈수록, 제 완전한 약함과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장막이 아닌 성령 안에 살며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거나 섬김의 즐거움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임재 안에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혜, 힘, 인내,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제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친구, 물질, 사람이 만든 조직이 저를 버리더라도, 제 주변의 피조물들이 불타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음으로써 저는 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충만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거하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든지 저를 놀라운 특권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 무소부재

주님, 저는 어떻게 주님이 끊임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거하십니다. 원자보다 작은 단위의 복잡함에서도, 수백억 개에 달하는 은하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신경 쓰시며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함을 확신하며 완전한 자유 속에 거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발맞추고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19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슬픔, 고통, 실연이 없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쓰러질 것 같은 피로도, 하늘을 찌르는 질투도, 방해하는 죄도 없는 날을 기다립니다. 저와 다른 사람 속의 불신, 두려움, 교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러한 일시적인 아픔을 딛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 시선을 고정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제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가 설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욱 신실하게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고 제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무소부지

주님, 주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피조물에 대해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 모든 상호작용과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반응과 모든 가능한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든,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결정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을 기꺼이 따르고 제 소망을 찾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그 소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안목과 뚜렷한 판단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20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되기 전까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율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흠이 없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며,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을 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제 신실함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팎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제 삶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거나 세상 속 걱정이 영적인 걱정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제가 필요한 유일한 것, 즉,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즐거이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세상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정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제 모든 생각과 동기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일한 소망이 되심으로써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구할 때 더욱 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 전지전능

무한한 힘을 가지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주님. 주님의 한없는 위대하심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주님의 완벽한 영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형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명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향해 일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완벽한 의를 행하시는 것을 아는 저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는, 꼬인 것을 푸는 그 어떤 소망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능력을 제한하시고 사람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제한을 넘어서시고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에게 온유함과 겸손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하신 방식으로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21일

주님,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영광받으시옵소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이루시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공이나 고난, 건강이나 질병과 아픔, 제 삶이나 죽음 등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과 능력 아래 만물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어떻든지 똑같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승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희생에서도 큰 영광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과 원수의 공격에서 나온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저를 방해하는 원수의 방해와 짐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함으로써 낙심과 좌절, 두려움으로부터 제 영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보여 주시어 저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완벽히 회복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안에서 이 조건의 작은 일부를 만드시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와 트로피로 삼아 주시옵소서.

###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책의 끝을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쓰셨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제 시선을 고정하고 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세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현실 속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현재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제22일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희망을 잃고 짓밟힌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숙자, 우울에 빠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죄에 조종당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비탄에 빠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친절을 나타내는 방법,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방법으로 제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선하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 자비, 동정, 온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좋은 점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범으로서 따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적합하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듯이,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예비해 두신 선한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23일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의 성품을 끊임없이 고상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겸손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제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제 헌신과 열정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림과 망설임이라는 이름의 어리석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 근원, 창조주, 저자

주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저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를 왜곡하고, 부수고, 타락시켰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가 새 피조물이 되어 섬기고, 살고, 경배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계속해서 완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저희가 위대한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를 깨닫는 날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충만한 삶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들어 낸 왜곡, 파괴, 타락마저도 저희를 준비시키고, 정결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하시고, 시험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낳고, 패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약함에서 강해지고, 겹손에서 영광을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손안의 흙입니다. 저희를 빚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24일

주님, 부적절한 방식으로 경배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는 천사들의 경배와 제 마음의 가락을 맞춰 주시옵소서. 자격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제공해 주신 놀랍고 과분한 유익과 저를 위해 예비하여 두신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과 제 경배, 제 영혼이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제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둔 묵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더 온전해집니다. 제 믿음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열린 마음, 손, 집, 천국

주님,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소망하시는 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순종, 감사, 헌신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손을 여시어 하나님의 축복, 은혜, 자비,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으니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과

연민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됨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희생적인 섬김이 하나님의 희생을 닮아가게 하시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집을 열어 영원한 경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트로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혼이 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현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관계와 친교를 경험할 때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여시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풍성한 삶의 유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훌륭한 문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열린 천국의 문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의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25일

영광받으실 구주 하나님, 하나님은 제 삶이자, 소망, 기쁨, 평화, 보물 되시며, 영광이자 마지막 되십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뜻, 방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 발걸음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 사랑으로 기쁨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둠 속 빛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저를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 성화

주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감각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길을 떠날 때 제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루기 원하시는 소망을 보고, 채우기 원하시는 공백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와 세상 영의 악취를 구별할 수 있는 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달콤한 향기를 가는 곳마다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키며 원수의 모든 속임수를 멀리할 수 있는 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교감하시며 다른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향을 느끼고 손길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몸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들을 통해 주님의 형상과 소망에 맞춰 제 영혼과 마음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육신의 감각이 아닌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시에 제 영혼의 감각을 사용하시어 마지막 구원에 대한 소망을 키워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사소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사로잡힌 삶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순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제26일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에 제 온 마음을 바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밖에 다른 어떤 흥미에도 관심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채 독실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바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로워지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제 의지가 확고하게 하여 주시고 제 사랑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약해지더라도 제 마음의 힘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림돌과 고통, 슬픔, 실망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다른 사람, 나, 피조물의 4가지 관계에 대한 구원

사랑하는 주님, 예전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언제나 구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회복하시고,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일부로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제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포함한 관계의 모든 측면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저희를 의롭게 만드셨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 저희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 저희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매일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현실 속 삶에서 더욱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 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에 대한 증인과 칭지기 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물이 온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기다림 속에 사는 저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나날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 제27일

## 사회 수준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하나되고, 순종하고, 사랑하시듯이 저희 개인 및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패턴의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 공동체가 삼위일체처럼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도시와 마을이 하나님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저희가 하나님의 심장박동에 맞춰 살아갈 때 나라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 하나님의 피조물과 상호작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때 세계의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무대가 되기 원합니다.

## 사회를 변화시키는 5가지 힘

주님, 주님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는 사회든 행동 양식을 공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설계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향이 인간에게 미치기 원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짓밟힌 자들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우선순위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업:** 비즈니스, 무역, 금융 분야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설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금융 시스템과 패턴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번영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하고 영광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가정과 가족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중요성과 영향을 깨닫고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선생님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로 교육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 사람들이 서로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격차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에 미디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다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또는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개인의 삶과 공적인 삶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종교의 거짓, 가식, 타락이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교에 간혀 눈이 먼 사람들의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곤경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에 끊임없이 신경 써 주시고 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 제28일

### BLE(E)SS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설계의 선함을 경험하며 변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Body(신체):** 그들이 활기차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섬김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들의 건강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bor(노동):** 각 사람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일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서 충만함, 기쁨, 영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보여 주시옵소서.

**Economics(경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는 것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otions(감정):**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눔으로써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ocial(사회):**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슬픔이 아닌 생명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Spiritual(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는 삶을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적인 삶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품, 목적, 뜻, 방법, 생각, 마음, 소망**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삶은 충만하고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영원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영원에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만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판단하고 그 의미를 찾는 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을 제가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주치는 상황과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환경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림으로써 길에서 마주치는 코너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제 생각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열정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작은 것들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 소망이 온전히 주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 제29일

### 고난에 대한 반응과 고난의 유익

[이 기도는 2017년에 작성된 박해와 고난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 시리즈의 요약이다. 이 시리즈의 파일 중 하나는 obeygc2.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파일에서 이 모든 요청에 대한 성경 참고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주님, 제 삶에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제 신실함과 성숙함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기 원합니다.  
 제 삶을 시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애통해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원합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크게 기뻐하기 원합니다.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저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제 뜻과 소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만한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이익을  
 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 지위를 사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 원합니다.  
 격려받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대중에게, 개인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중에게, 개인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인해  
 고난받더라도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기 원합니다.  
 다른 신도들을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섬김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전디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동일시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안 좋은 상황과 형편을 통해  
 커다란 인내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순수하고, 이해하고, 전디고, 친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의의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기꺼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맞고,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죽어도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 불편, 슬픔을  
기꺼이 마주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신경 쓰기  
원합니다.

제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약함과 모욕, 고난, 박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고난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죽임당하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제 자유를 바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죽임심에 기꺼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희생의 뜻으로  
스스로 징계하며 통해 자발적으로  
고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구하기  
원합니다.

제 섬김과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로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에 대해 죽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소망과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으며  
위로를 구하기 원합니다.

경건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재물을 바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숨기며  
고난에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기 원합니다.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희생을 기꺼이  
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겪게 될 모든  
반대와 고통, 불편을 기꺼이 겪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 고난을  
견디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고난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견디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에도 견디기 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인내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짓거나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저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원합니다.  
 겁주지 않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옳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온유함과 존중을 통해 제 소망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받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태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맹렬한 시련과 시험에 놀라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평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경계하며 깨어 있기 원합니다.  
 사탄에 저항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신자들이 믿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하기 원하며  
 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구합니다.

저와 제 믿음을 시험하시고,  
 정제하시고, 증명하시길 구합니다.  
 희망을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임을 보여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길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구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을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실제적인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기를  
 구합니다.  
 제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보다 온전히 동일시되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길  
 구합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영원함과 능력을 증명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을 구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열매 맺길 구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평안과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증명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널리 선포하시길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길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갈 공간을  
구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같이) 제 미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희생하는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길 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제 날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길 구합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진실을 증명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 사역을 인정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 말을 인정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 삶이 알려지길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진짜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시길  
구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망을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영광 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증명해 주시길 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시길 구합니다.

다른 신자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이 제 의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구합니다.

구원의 힘을 저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해 주시길

구합니다.

서 있을 힘을 주시길 구합니다.

영광과 영예를 주시길 구합니다.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길  
구합니다.

더 귀하고, 영원한 재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을 보여  
주시길 구합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길 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놀라운 승리의  
기회를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훈계를 주시길 구합니다.

저를 더욱 경건하게 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 삶에서 의와 평안의 열매 맺길  
구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제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영예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길 구합니다.  
제 부르심을 다하길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길 구합니다.  
저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 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위해  
더욱 충만히 살게 하시길  
구합니다.

미래에 저에게 더 큰 기쁨 주시길  
구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을 더 크게 나타내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회복, 힘, 강건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길 구합니다.  
저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완수하시길 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제30일

#### 음성 듣기, 분별하기, 귀 기울이기

주님, 주님의 가장 작은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신성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민감하고 흔들림 없이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눈짓과 손짓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의 감각을 통해 제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제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 향수병(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길 구합니다. 새 피조물이 창조되길 갈망합니다. 제 새로운 몸이 온전해지길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으로 보게 될 그날을 갈망합니다.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길 갈망합니다. 영원한 날을 밝힐 하나님의 임재를 본능적으로 영원히 깨닫길 갈망합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